

트  
)

해  
꿈

해  
몽

解 夢
해 몽



解夢

---

해몽

FROM DREAM	9
가주어	33
메이드 인 차이나	57
특별하지 않은	83
목요일의 인터뷰	111
작가의 말	137



# FROM DREAM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밝은 오후였다. 눈앞에는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었고 내 양옆에는 나무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잎사귀를 살랑이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이곳은 내게 낯선 장소가 아니었다. 몇 번이고 내게 휴식처가 되어줬던 곳, 나에게 쉼을 알려줬던 곳이었다. 내 리췌는 햇볕에 눈을 떴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 나만 있던 나의 세계에 낯선 손님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 혼자만 있던 공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보다 키가 큰 여자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그 애는 나를 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나는 지유은이야.”

그 애는 자신을 지유은이라고 소개했다. 지유은은 나를 전혀 경계하지 않는 밝은 모습이었다. 나만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지유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어 생각해봤지만 없었다.

“나는 서주연. 근데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내 췌그린 미간을 보고서도 지유은은 내 물음에 그냥 입꼬리를 올려 웃기만 할 뿐이었다. 대답해줄 것 같지 않았다. 지유은이 뒤를 돌아 호수 쪽으로 걸어갈 때 나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햇볕 때문인지 내 새까만 흑발과는 달리 빛나는 금발은 지유은을 돋보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허무하게 잠에서 깨버렸다. 이름만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내 침대 위에 있었다. 평소보다 더 빨리 깬 탓에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시계의 시침은 아직 4를 가리키고 있었다. 꿈에 대한 긴 여운이 남았고 코가 찌릿찌릿했다. 예전에 코안에 상처가 난 뒤로 코가 예민해졌기에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가 보다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을 같은 공원에서 지유은과 만났다. 다시 만난 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만난 날에 나는 벤치에 앉아있었다. 지유은은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를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기에 귀여웠지만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지는 의문이었지만 피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다가갈 수는 없었다. 다음날도 그다음 날에도 딱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산책하기도 했고 호수에 있는 잉어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기도 했다. 같이 내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먹기도 했다. 그저 평범하기만 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평소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다. 이 느낌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귤가에 시끄럽게 울려대는 알람을 무시했건만 알람은 나를 깨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감고 있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주 밝았다. 눈을 뜨니

밖은 환해져 있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방에서 뛰쳐나갔다.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각이었다. 허겁지겁 준비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소정이가 이미 버스 한 대를 놓쳤다고 나에게 장난스럽게 질책을 했다. 이걸 가지고 며칠 내내 우려먹을 게 뻔해서 매점에서 간식을 사준다고 하며 소정이의 입을 단단히 막았다.

“주연아, 그거 알아? 오늘 4반에 전학생 온대. 완전 예쁘는데?”

소식이 빠른 소정이는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접했는지 옆에서 조잘대고 있었다. 고2인데 이제 전학 오는 애가 있기는 하구나. 친구들 사귀려면 힘들겠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전학생 소식이 전교로 퍼진 것인지 4반을 기웃대는 아이들이 많았다. 어차피 나는 4반과 멀리 떨어진 8반이기에 상관없었지만, 아침부터 복도가 소란스러운 것은 딱히 반갑지 않았다. 야, 재인가 봐! 옆에 같이 가던 소정이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누구인지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다. 반갑지 않은 얼굴이 보였다. 강은솔이었다. 마주치기 싫은 얼굴을 마주쳐서 그런지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다. 왜 강은솔은 나를 보고 눈빛이 흔들리는 걸까. 내가 잘못 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또다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 그때 느꼈던 그 비참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피하는 것을 선택했다. 반으로 달려갔다. 습관적으로 손톱을 물

어뜬었다.

“야, 뭐야. 왜 갑자기 뛰어?”

소정이는 내가 갑자기 뛰어가서 당황했는지 급하게 뒤따라 와서 내게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대답을 피했다. 소정이는 이런 내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는지 옆에서 계속 눈치를 보다가 옆자리에 앉아서 금방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었드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이 불안이 사라질까.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내가, 잔잔한 파도와 같은 상태였던 내가, 태풍이 몰아치는 파도 같은 상태로 변해있었다. 내게는 너무 거세기만 했다. 선생님도 었드려 있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에 나를 깨우거나 그러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차라리 잠이라도 자고 싶어 잠을 청했지만, 이 소란스러운 교실에서 잠들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수요일이라서 학교가 평소보다 빨리 끝나는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는 종이 울리자마자 가방을 들고 집으로 뛰었다. 친구들은 급하게 반에서 뛰어나가는 날 보고 뒤에서 소리쳤지만, 그것까지 신경 쓸 수 없었다. 집에 가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현관에서는 비밀번호도 몇 번 틀리는 바람에 엄마가 도둑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장난을 받아칠 상태가 아니었다.

“얼굴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오늘은 빨리 자야겠다. 나 들어갈게.”

엄마의 장난도 받아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 그냥 빨리 잠들기를 바랐다. 하지만 머릿속은 너무 많은 생각들로 꽉 차서 빨리 잠들기 힘들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조차 생각이었으니 너무 괴로웠다.

제발 아무 생각도 안 나게 잠들게 해줘. 겨우 잠든 나는 꿈속으로 도피하고 있었다. 내게 닥쳐오는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나는 도망치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아서 나는 무서웠고 삼켜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달리고 달렸다. 어느 순간 숨이 턱하고 차올라 순간적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 앞에 유은이가 서 있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한 얼굴을 하고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런 유은이 때문에 눈물이 막 나왔다. 울지 않으려고 눈물을 급하게 닦아내도 눈물은 내 손을 비집고 나왔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도 유은이는 내가 왜 우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옆에 와서 어깨를 토닥여 주는 유은이가 좋았다. 웬지 모르게 안심이 되어서 바닥에 털썩 앉아 울고 싶은 만큼 울어버렸다.

“왜 울었는지 안 물어봐?”

“기다려주려고. 내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서.”

유은이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내 옆에 앉아있었다. 내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유은이의 얼굴에는 따분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짜증 날 법도 한데 내가 보는 유은이는 그 대로였다. 내 이야기를 유은이한테 들려줘도 될까. 나의 이야기인데 분명 내가 겪은 일인데 그 일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내 진심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두렵고 어렵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았으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된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너에게 말할 수 있을까?

“괜찮아.”

유은이와 눈을 마주치면 참았던 게 다 쏟아져 버릴까 봐 눈을 감아버렸다.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될까 봐 입술을 꼭 깨물었다. 왜 자꾸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건지. 왜 기대고 싶게 만드는 건지. 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게 하는 건지. 끊임없이 나오는 눈물에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괜찮아.’라는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질 것 같았다. 이렇게 계속 기댈 것만 같았다. 결국, 난 내 이야기를 하려고 다짐을 했다. 몇 번을 생각해도 결론은 이것뿐이었다.

“나랑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초등

학교 때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힘들어했던 소심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다가와 준 친구였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마음이 더 갔다. 먼저 용기를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다른 문제 없이 영원히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었다. 흔히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균열이 나만 피해가지는 않았다.

“은솔이가 네 뒷담 줬다는데, 알고 있어?”

“에이,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믿지 않았다. 당사자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저 친구도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일 테니까. 소문은 전해지는 사람에 의해 바뀌어버리고는 하기에 나는 믿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저번에 나에게 말을 전해줬던 친구였다. 은솔이가 나를 또 욕했다고 했고 나는 믿지 않았다. 안 믿고 싶었다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은솔이는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닐 것이라고 설마 그러겠느냐고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 친구는 나를 걱정하는 투였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피운 뒤였다.

은솔이를 향한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안 믿고 싶어도 계속 들려오면 어느 순간

진짜인가 진짜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결국, 난 은솔이를 찾아갔다. 은솔이는 내가 온 지도 모른 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개 착한 척하는 거 보면 진짜 짜증 나.”

“너 서주연이랑 친하잖아. 안 친해?”

“뭘래. 너랑 더 친해.”

은솔이는 나와 친하지 않느냐는 말에 인상을 구기며 말을 했다. 나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주던 친구가 그 입으로 나를 욕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다. 당장 방금까지만 해도 은솔이는 내게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 믿어본 적도 없는 신을 믿어 보고 싶었고 신께 빌었다. 그렇지만 신은 누군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운명을 바꿔주지 않았다. 아닐 거라는 믿음이 깨진 순간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머리에 누가 돌을 던진 듯 머리가 울렸다. 제자리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은솔이에게 다가갔다. 저게 가면을 쓴 얼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착각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은솔아, 너 내 뒷담 깬어?”

“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은솔이는 눈썹을 살짝 들썩이며 말을 했다. 뻔뻔했다. 그 당당함이 나를 더 무너뜨렸다. 한 발 더 가면 상처받는다느니 알았지만 이미 와버린 길을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한 발 더 내디뎠다. 한 번만 더 아니라고 해주겠니.

“너 방금도 나 깬잖아. 왜 자꾸 아닌척해?”

“야, 그럼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나.”

은솔이는 지겹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떨리는 몸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는 손톱자국이 남아있었다.

“은솔아.”

“그래. 깬어. 네 꼴 보기 싫어서 네 욕했다. 근데? 그게 뭐.”

은솔이의 차가운 표정이 날카로운 말투가, 모든 한 마디 한 마디가 비수로 와서 꽃혔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말과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듣는 말은 그 무게부터 달랐다.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냥 아니라고 한 번만 해주길 바랐는데. 그 한 번을 넌 해주지 않구나. 나한테 보였던 행동들이 다 거짓 말이었구나. 내 친구 은솔이는 언제부터 사라진 거니. 언제부터 넌 내게 내가 아니었던 거야.

“은솔아, 제발.”

장난이라고 해주길 바랐다. 나는 네가 거짓말이었다고 장난이었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너를 친구라서 생각했으니까. 난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 없었다. 은솔이는 나를 보고서 그냥 픽하고 웃고 갈 뿐이었다. 비참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져서 너무 아팠다. 항상 같은 리듬을 유지하고 있던 나의 세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무너지는 땅으로부터 나는 위태롭게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것만 같았다.

그렇게 몇 년을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멀어졌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갑자기 계절이 변하지도 않았고, 꽃이 지는 일도 없었다. 그냥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은 내 옆에 더는 나의 친구가 없다는 것. 딱 그 정도였다.

“너한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 못 했어.”

“다른 친구들한테는 왜 말 안 했어? 혼자 담고 있기에는 힘들었을 텐데.”

유은이의 질문에 조금 당황했다.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내가 진짜 나의 속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학교에서의 우정은 학교 한정이니까. 학교 바깥으로 가고 가긴 힘들더라.”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각자 얼굴에는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일 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 고쳐 써야 하는 가면을 쓴 서로

가 서로에게 자신의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을 때 나에게 와. 기다리고 있을게.”

내 이야기를 하고도 답답하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다. 무더졌을까, 아니면 그 정도의 위로를 받을 탓일까. 잘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 유은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힘들 때 친구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게 진실인 듯했다.

“너 같은 친구가 생겨서 좋아. 유은아, 우리 친구 맞지?”

“맞지 친구.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내 눈을 맞추며 말해주는 유은이는 마지막까지 다정했다. 자신에게 기대도 된다고 자신에게 털어놓으라는 말을 해주는 친구가 생긴 게 좋았다. 유은이가 먼저 내밀어 준 손에 내 손을 뻗어 맞잡은 순간 잠에서 깼다. 아까 울어서인지 베개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내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울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는 채로 걱정하는 꼴이라니 내 모습도 참 웃겼다.

수요일 6, 7교시는 동아리 시간이었다. 동아리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었고 나는 딱히 관심 있는 동아리가 없었다.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독서 동아리에 들어갔다. 물론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동아리를 하면 반 이동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걸 노린 것도 맞다. 인기가 없는 동아리여서 그런지 진짜 필수적 인원만 딱 채운 인원이었다. 근데 나의 귀찮음이 불러온 이 선택이 나를 다시 머리 아프게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전학생이라 들어갈 동아리가 없던 강은솔은 인원이 적은 우리 동아리도 오게 된 것이다. 맨 앞에 앉은 내가 맨 뒤에 앉은 강은솔을 보지 못하는 건 나로서는 다행이었다. 강은솔이 말을 거는 일은 없었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었고 내 결을 뻗는 게 이젠 짜증 났다. 반 앞에서 서 있는 것이나 내가 나오면 무언가 말을 할 듯 말 듯 하는 게 행동하는 것이 짜증 났다. 제대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헐끔헐끔 보기만 했다. 강은솔을 신경 쓰다가 선생님께 꾸중도 들었다. 집중해야 하는 데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읽는 등 마는 등 허무하게 보내버렸다. 책을 읽고 토론을 해야 해서 시선이 계속 마주쳤지만 직접 강은솔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다. 쉬는 시간에는 소정이가 심심하다며 찾아왔기에 나를 보고 있는 강은솔로부터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 왜 자꾸 보는 건지 모르겠고 신경이 계속 쓰여서 짜증이 났다.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하기 싫었다. 소정이는 책상에 엎드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주연아, 또 자려고? 나랑 놀아줘. 너 요즘에 맨날 잠만 자는 거 같다?”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꿈을 꿀 수만 있다면 나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꿈을 꾸려 했다. 내 꿈은 현실을 놓고 싶을 정도로 황홀했고 나는 잠에 더 오래 들기를 바랐다. 내 안에만 있던 나의 세계가 반짝인 순간이었다. 꿈은 꼭 달콤한 음료수 같았다. 음료를 마시면 더 마시고 싶고 그 후에는 다시 물이 마시고 싶은 것처럼 꾸면 꿀수록 갈증이 나서 더 꾸고 싶고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나는 유은이가 나오는 꿈을 꾸 순간부터 그 꿈에 중독되고 있었다.

꿈을 더 자주 꾸고 싶었다. 잠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자려면 무언가가 필요했다. 꿈을 기억하는 것은 정신만 깨어있고 신체는 잠을 자는 상태라서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도 난 괜찮았다. 아직 버틸만했다. 수면제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수면유도제를 사려고 여기저기 약국을 돌았다. 수면제에 비하면 효과가 약할지도 몰랐다. 약에 내성이 생기면 그것마저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이 먹으면 약 효과도 희미해서 금방 깰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걸 신경 쓸 여지가 없었고 선택할 선택지가 없었다. 수면유도제가 오래 자게 돕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는 그 무엇이더라도 필요했다. 여러 약국을 돌며 수면 유도제를 구매했다. 약사는 내게 주의사항을 말해주었다.

“1일 1회 두 알을 취침 30분 전에 복용하시고, 더 많이 드

신다고 약효가 두 배 되지는 않습니다. 부작용만 커져요.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2주 이상은 복용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었고 잠에서 깨고 나면 멍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집에 오자마자 두 알을 입에 털어 넣고 눈을 감았다. 조금씩 나른한 느낌이 들더니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들어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더 이 방법으로 유은이와 꿈에서 만났다. 유은이와 계속 만나는 게 좋았다. 그래서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항상 몸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눈이 빠근했고 행동이 확실히 처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고 친구들은 내 썩한 얼굴을 보고 걱정을 했다. 나는 입꼬리만 올려 웃어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는 얼굴이 아니었다. 신경 쓰이는 게 하나 더 있었다. 강은솔이 계속 내 주위에서 얼쩡거리는 것을 보았다. 왜 얼쩡거리는지 자신을 보고 피하는 내가 또 보고 싶은 건지. 자신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내가 그쪽을 바라보면 너무 티 나게 벽 뒤로 숨는 강은솔이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제 와서 죄책감이라도 드는 건지. 아는 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체하고 책상에 앉드렸다.

모범생이었던 내가 학교생활에 나태해지자 선생님들은 나에게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하셨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상담을 하자고 하셨다. 상담을 해도 딱히 할 말은 없었다. 공부에 흥

미가 떨어진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 선생님은 내가 말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다. 털어 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무언가 힘들면 찾아오라며 어깨를 두어 번 두들겨 주셨다.

“힘든 거 있으면 찾아와.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있는 거니까.”

끝까지 알아내려고 하지 않으셨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음에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내게 정말 감사하기만 했다.

약을 몇 번 먹으니 약 효과가 금방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시기부터였다. 유은이가 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꿈을 꾸면 계속 처음 보는 하얀 방에 있었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유은이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지만 잠에서 깰 때까지도 항상 나타나지 않았다. 잠깐 학교에서 졸았을 때도 그랬고 집에서 제대로 잠을 자려고 할 때도 그랬다. 조금 그러다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내가 꺾야 할 꿈이 아니었으니까. 이번만 지나면 볼 수 있다고 오늘만 지나면 나타날 것이라고나 자신을 위로했다. 유은이를 만나야 하는데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어디 있니. 왜 나타나지 않아. 한 번만 와주라. 딱 한 번만 다시 나타나 줘.”

불안했다. 불안에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일 없다고 되새겼던 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유은이를 못 보게 되면 어떡할까. 그럼 나는 어떡하지. 상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엔딩이었다. 꿈을 꾸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몸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충분히 자지 못해 눈 아랫부분은 이미 검게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통도 심해졌고 코도 계속 찌릿찌릿했다. 습관적으로 손등을 코밑에 대보았지만, 코피는 나지 않았다. 너를 찾고 싶었다. 왜 사라졌는지 왜 더는 나타나지 않는지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너를 다시 보고 싶었다. 어느 날 나 밖에 없던 내 세계에 나타나 홀연히 사라져버린 유은이가 내게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해버려서 내가 놓지 못해서.

갑자기 머리가 핑하고 돌았다. 걸음을 내디터 보려고 했으나 코 아래에 따듯한 액체가 흐르는 게 느껴졌다. 옷소매로 쓱하고 닦으니 소매에 붉은 것이 묻어있었다. 코피가 나고 있었고 헛웃음이 나왔다. 예전의 코안 상처 때문에 나는 코피가 아니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코피가 나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분명 나는 방문을 열고 발을 뺐었는데 내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게 나는 기절했다.

눈을 떴을 때는 바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내 옆에는 엄마가 앉아있었다. 팔에 링거를 맞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병원인 것 같았다.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봤다. 시계의 시침은 4를 가리키고 있었다. 꽤 오래 잠든 것 같았다.

“주연아, 깬어? 몸은 좀 어때. 괜찮은 거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걱정했잖아.”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주는 우리 엄마에 너무 미안했다.

“괜찮아. 엄마 걱정할까 봐 그랬지. 진짜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걱정하는 엄마에게 차마 괜찮지 않다고 할 수 없었기에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 또, 이제야 알았다. 넌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 몸의 상태로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버렸다. 나만 기억하는 그 시간이 쓰러졌다. 달콤했던 사탕처럼 입안에 달콤한 맛을 남겨주고 사라져버렸기에.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한다. 내 세계에만 존재했던 사람으로 남겨둬야 한다. 그저 좋은 추억이었다고 계속 되뇌었다.

“너무 슬퍼. 눈물이 나와.”

“왜 그래 주연아. 혼자 안고 있으면 더 아픈 거야.”

“엄마. 나 그냥 안아주라.”

너무 다정한 얼굴을 하는 엄마가 유은이랑 겹쳐 보여서 엄마 품에 안겨 더 울어버렸다. 나를 토닥이는 손길에 너무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길에 평평 울었다. 나는 너를 기억하지만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더는 만날 수 없는 것이 아팠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조금씩 괜찮아지는 중이었다. 다시 원래의 패턴을 찾기까지는 힘들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같이 다니는 친구인 소정이가 멍한 상태의 내가 걱정되었는지 자신의 담요도 가져다주고 옆에서 보건실 안 가 봐도 되겠냐며 걱정을 해주었다. 소정이 덕분에 었드려서 쪽잠을 청할 수 있었다. 다음 시간이 동아리라서 금방 일어나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소란스럽게 각자 동아리 교실로 이동하는 사이 나는 눈을 떴다. 이제 동아리를 시작하겠구나 했는데 시계를 보니 소란스럽게 반으로 돌아가는 소리였다. 눈만 붙인 줄 알았는데 두 시간을 쉬지 않고 잠을 잔 것이었다. 읽으려 했던 책을 사물함에 넣으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눈앞에 보인 것은 내가 들리고 했던 책을 들고 있는 강은솔이었다. 책을 뺏으려고 했지만 쉽게 뺏을 수 없었다. 내가 인상을 찌푸려도 말을 이어 나갔다.

“얘기 좀 하자.”

“내가 왜.”

“나랑 얘기하는 거 싫을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진짜 한 번이면 돼.”

“알면서 내가 왜 너랑 얘기해야 하냐고.”

왜 강은솔이 저런 표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상처를 준 건 자신이면서 왜 자기가 상처받은 표정을 하는 것일까. 싫다는 사람 붙잡으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대체 뭘까.

“이제 와서 네 죄책감 조금 덜어보겠다고 그래? 변명이라도 하려고?”

말이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다. 자기방어의 한 종류일지도 몰랐고 내 진심의 일부일지도 몰랐다. 강은솔은 입술이 마르는지 입술에 침을 바르고 있었다.

“네가 부러워서 질투가 나서 그랬어. 네가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그래서 질투가 났어. 어쩌면 한순간의 질투심이었을지도 몰라. 네가 나랑 이야기하는 거 꺼끄러울 거 알면서도 사과하고 싶었어. 미안해.”

손과 발이 굳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이었다. 내 주위를 맴도는 것이 나를 또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근데 강은솔이 나에게 하려던 이야기는 사과였다. 그런 표정으로 사과를 하면 나는 또 바보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나

의 애정의 크기였다.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웃으며 지낼 수는 없잖아. 그럴 생각도 없고. 근데 사과를 받을게. 이번에는 너의 진심이었기를 바랄게.”

누구의 관심, 누구의 사랑 그게 뭐라고. 그게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멀어졌고 그 중심에는 강은솔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강은솔을 뒤로하고 반으로 걸어가는데 빨리 자리에 앉으라는 선생님의 방송이 계속 울렸다.

다들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북적였다. 친구들과 조잘거리며 집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인파들 사이로 우리가 타는 95번 버스가 몇 분이나 남았는지 보았는데 4분이 남았다고 전광판에 떠 있었다. 빨리 타려고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 시간보다 버스는 일찍 도착했다.

“야, 서주연! 버스 왔다. 가자!”

사람들에 치이며 버스에 올라탔다. 날씨가 아주 선선해졌다.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왔다. 버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붉었다. 저녁노을과 낙엽은 아주 예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은 날이 있다. 나에겐 오늘이 그 날일 뿐이었다.

# 가주어



야간 자율학습이 막 끝난 복도는 집에 가려는 학생들로 붐볐다. 매일 이 시간대에 있는 당연한 일이긴 했지만, 교과서가 잔뜩 들어있어 무거운 가방을 메고 1층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것은 무리였다. 오늘은 이태인이 함께 하교하자고 해서 같이 내려가야 했다. 그러나 계단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정신이 없었다. 이태인도 5층에서부터 같이 내려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1층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먼저 계단을 내려갔다.

그렇게 이태인과 함께 하교를 했다. 누가 봐도 딱히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2년째 같은 반인 이 애는 나에게 많은 이유로 그다지 달가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특히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확인한 이후로 더 달갑지 않았다. 나를 바라보는 이태인의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타는 10분이 50분같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걷는 동안 이 애의 생각을 읽어보려 했지만 전혀 입을 수 없었다. 여유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이태인이 왜 자꾸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갔다. 곁에 친구도 많은 애가 왜 내 주변에서 맴도는 것일까. 그렇다고 면전에 대고 너 왜 그러냐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키지는 않더라도 적당히 맞춰주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태인은 학기 초반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거슬릴 정도로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 체육 시간에 짝 활동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말한다던가 내가 교무실에 갈 때도 같이 가자고 나를 따

라왔다.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닌데 신경 쓰이게 주변을 서성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미처버릴 것만 같았다. 짝꿍인 채영 이마저 요즘 이태인이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하니 더 혼란스러웠다. 그러다가 이태인 쪽 자리를 바라보면 어느새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있는 밝은 모습이 보여서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워졌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친해지자고 말을 걸던가 할 텐데 이태인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내 곁을 맴돌긴 했지만 친해지려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말을 거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혼자 수업 과제를 들고 교무실에 갈 때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자연스럽게 내 심부름을 도와줬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일만 해도 서너 번은 됐다. 괜히 째째 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애를 피했다. 심부름이 생기면 먼저 빨리 하던가 쉬는 시간 때도 이태인이 앉아있는 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먼저 피하면 이 애도 신경 쓰이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 피했다. 그러나 이태인과 나는 자꾸 엮였다. 오늘도 이태인은 할 말이 있는 듯이 나를 바라봤다. 사실 좀 황당했다.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을 이미 알아챘을 것 같았는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와서는 같이 하교를 하자고 하다니. 이태인의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자 이태인은 내 눈을 뵈히 바라봤다. 나를 따라오는 이태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같이 하교를 하자는 말을 수락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하교를 하는 것이었다.

집에 거의 다 와 갈 때쯤 이태인은 나에게 왜 눈치를 봤냐고 물어봤다. 눈치를 봤다는 말에 걸어오고 있을 때부터 밖으로 향했던 내 시선을 이태인에게 옮겼다.

“어? 내가 눈치를 봤어? 나 눈치 안 보는데?”

“옆에서 자꾸 손톱 뜯길래 궁금해서.”

“내가 손톱을 뜯었구나……”

몰랐던 사실에 괜히 빨쫌해져 가방끈만 만지작 거렸다.

“아니야. 내가 오해했나 봐.”

이태인은 나를 한 번 바라보더니 다시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다.

“아 우리 집 다 왔다. 내일 보자 이태인!”

이태인은 할 말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나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들어왔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이태인과는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치를 봤다는 이태인의 말이 다시 떠올라 이 생각은 저절로 사라졌다. 집에 가는 길이 어색해서 손톱을 뜯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온 듯했다. 자꾸 이러는 편이 아닌데 확실히 이태인이 불편하긴 했나 보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안 좋은 습관이 나왔겠지.

다음 날 아침에 시끄러운 반 안에서 가정 통신문을 건어야 했는데 아이들의 큰 목소리에 자꾸만 내 목소리가 묻혔다. 큰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톤의 목소리를 가진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유난히 오늘따라 애들의 대화가 시끄러웠

다. 채영이는 당황스러워하는 나를 보더니 자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뿜내듯 반 애들한테 나 대신 통신문을 건어줬다. 아침에 등교하고 나서는 항상 잠만 자던 채영이가 나 대신 나서줬다는 게 고마웠다. 웬지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태인이 나를 뵈히 바라보거나 내가 해도 되는 일들을 도와주는 것도 이제 익숙해져갔다. 왜 도와줄까 하는 생각보다는 나를 도와주고 싶나 보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다. 이태인의 행동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변할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를 도와주는 이태인의 얼굴은 항상 뭔가 미묘했다. 여러 감정이 얼굴에 있어서 어떤 감정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이번에는 나를 계속 도와주는 이유를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전부터 계속 옆에서 우리를 쫓아 지켜보던 채영이가 먼저 이태인에게 말을 건넸다.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왜 자꾸 연우 일 도와줘?”

“힘들어 보여서, 부담스러웠나?”

이태인을 쳐다보고 있던 내 시선이 반의 하얀 벽으로 옮겨갔다. 이태인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이태인을 볼 수가 없었다. 이태인은 자신의 말이 진심인 듯 평소 같지 않게 웃음기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힘들어서 도와준다니. 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보는 적이 없는데 남들한테는 힘들어 보였던 걸까? 힘들지 않았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힘들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태인이 혼잣말하듯이 한 말에

채영이는 고민하다가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렸다. 생각지도 못한 채영이의 반응에 더 당황스러웠다. 힘들지 않다는 내 말에 둘 다 믿지 않는 얼굴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애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에 더 답답했다. 반 애들을 배려하려고 한 행동이 부담을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에도 이태인을 만났다. 빨리 등교하는 편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인지 내가 학교에 등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태인이 반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맨 앞자리와 맨 뒷자리라서 이태인이 내 자리 주변으로 오는 일은 없었지만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시선과 곧이어 숨 막히는 정적이 이어졌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채영이를 포함한 반 애들이 한두 명씩 등교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숨이 막혀 반을 뛰쳐나갈 뻔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굣길이 다른 채영이와는 인사를 하고 이태인과 함께 하교를 했다. 이제는 함께하는 하굣길이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이태인과는 이 정도의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다. 같은 반 친구와 하교를 같이 하는 친구의 사이가. 그런데 이 애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처럼 계속 직진했다. 우리 사이의 벽을 넘어올 것처럼 행동했다. 계속 뒷걸음질 쳐봤자 언젠가는 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애는 벌써 내 앞에서 있었고 벽을 넘고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정연우, 너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살아?”

상상도 하지 못한 이상한 말에 머릿속에 물음표가 끊임없이

이 그려졌다. 한 번도 내 감정을 숨기고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을 생각도 해보지 못해서 너무 황당했다. 내 감정을 숨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데 왜 저 애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데 나를 얼마나 잘 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하는 이태인에 더욱더 어이가 없어졌다. 그냥 궁금증이라고 해도 내 의사 표현의 여부까지 궁금할 일이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산다고?”

“난 네가 되게 불안해 보여서. 아니라면 미안.”

“절대 아니야.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어.”

이태인에게 확실하게 아니라고 대답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항상 감옥 같았던 집에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도 채지 못한 채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만 늘렸다. 그렇게 나는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뜯었다. 그리고 멍하게 깜깜한 천장만 바라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만 천장이 내 머릿속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답답함에 평소 열지도 않던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밤공기를 마셨다. 어째서 이태인이 나에게 자꾸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할까.

계속 이런 잡생각들을 없애보려고 노력했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운동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도 자꾸 이태인이 내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았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왜 그 말이 맴도는 건지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다. 굳이 생각할 가치도 없는 말인데도 자꾸 떠올랐다. 너무 황당해서 이러는 걸까.

사실 잘 모르겠다. 평소에는 침대에 누워 생각을 하면 정리가 잘 됐는데 이번에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정말 내 감정을 숨긴 것도 모자라서 나까지 세뇌시켜 온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던 거지? 내 감정을 숨기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지? 다른 사람들과 내 의견도 못 말하는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오고 있던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려왔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들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려서, 졸지에 내가 살아온 삶까지 의심이 되기 시작해서. 짧은 시간 사이에 많은 기억이 나를 덮치고 지나갔다. 딱 한 번뿐이었지만 내 기억 깊은 곳에 있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니 손이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쥔었다.

나는 대부분의 어린아이가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평범하고도 평범한 아이였던 것 같다. 매일 밤을 꼬박 새우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예쁨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아버지는 나의 양육을 가정부 아주머니께 전부 맡겨놓은 채 나를 방치하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

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웠으며, 아버지께서 거리를 두실 때마다 내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무서웠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랬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정한 가족인 척 행동했기에, 고작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행동들이 다 연기라고 해도 우리가 진짜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덟 살 때, 나의 기대를 저버린 사건이 생겼다. 나는 아버지께 매년 받는 성의 없는 생일 선물이 아닌 진심이 담긴 생일 축하 한마디를 듣고 싶었다. 생일 전날에도 내일은 특별한 날이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듣는 척도 안 하셨다. 그래도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었다. 1년 중 유일하게 축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었기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고 학교에 갔다. 집에서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점심도 많이 먹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에 계시지 않았고 비록 성의 없었지만 매년 식탁에 올려두시던 생일 선물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소고기 미역국만 올려져 있었다. 나는 요즘 일이 바쁘셔서 깜빡하셨겠지라고 애써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하셔서 집에 오신 아버지께 말을 걸었지만, 아버지는 계속 옆에서 조잘 거리는 모습이 짜증 난다는 듯이 쳐다보시고는 나를 밀치고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밀쳐진 나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딸

이 넘어졌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무심한 아버지의 뒷모습만 한참 바라봤다. 그날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집에 있는 내 방의 커다란 침대에서 혼자 서럽게 울면서 보냈다. 내 생일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지 못하였던 걸 그때야 알게 되었다. 혼자서 내 생일을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내 방과 침대는 나를 감싸주기에는 너무 커다랐고, 나는 너무 작았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뒤 거실에 혼자 넘어진 채 나는 얼굴을 손에 파묻히고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중얼거렸다.

“오늘 내 생일이예요 아빠…… 내 생일……”

그래도 한 번씩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칭찬을 해주실 때가 있었다. 극히 드물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이긴 했지만 나는 그 기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내가 학교에서 선행상을 받아왔을 때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 상을 받아온 나를 보고 웃으시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냥 웃어 주시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웃으시니까 나도 웃었다. 웃으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그 뒤에도 상을 받아오면 한 번씩 나를 바라봐 주셨다. 그때처럼 웃어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내가 관심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 좋았다.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살다가 어쩌면 나에게도 아버지께 사랑받을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바르고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더 착한 아이가 되는 것에 집착했고,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착한 아이의 범주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했고 항상 나 자신을 압박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항상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셨던 아버지셨지만, 찰나의 달콤함을 위해 여덟 살의 나는 ‘착한 아이가 돼야 해. 내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다. 절대 나의 노력으로 바뀌지 못할 것들을 바꿔보려 애쓰며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래서 나는 항상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정해 놓은 자신의 꼭두각시 같은 딸로 무작정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점점 진짜 정연우 나 자신이 내 모습에서 사라져갔다. 처음에는 나의 모습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는 건 사실이었고 나는 익숙해져 갔다.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던 약한 아이의 모습은 나의 깊숙한 내면에 숨겨두고 외면에는 어떤 사람에게나 친절하고 완벽한 모범생의 가식적인 모습만 남겨뒀다.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내 장점으로 여겨 주었다.

내 모습을 잘 감추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삶에 이태인이 등장함으로써 힘든 시간은 또다시 시작됐다. 나는 아버지께서 후원하시는 재단의 학교에 차석으로 입학했는데 수석 입학생이 이태인이었다. 아버지는 나보다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이태인을 부러워하셨고 곧 그 화살은 나에게 향했다. 매일같이 나와 이태인을 비교하셨다.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주셨다.

“태인이는 이번 시험 다 1등급이라던데 연우 너는 왜 영어가 2등급이 찍혀있어. 수석을 이기려면 네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작 6점 차이를 못 따라잡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기려고?”

“나는 이태인이 아니에요 아빠.”

계속되는 비교에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다.

“그래, 너는 이태인이 될 수 없지. 개는 재능이 있잖아.”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태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겼다. 아주 조금이지만 나도 감당하기 힘든 악감정과 질투심이 섞인 그런 마음이. 나의 다양한 감정들을 숨길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었을 즈음 나에게 또다시 시련의 이유를 제공한 내가 나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자꾸 나를 건드렸다. 결국 이태인 말이 전부 맞았다.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사실이 진실이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세뇌를 걸어서 나를 방치했다는 말이 진실이었다. 내가 다른 나를 연기하면서 살아왔다는 것도 모두 다 진실이었다. 10년 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사실이 머릿속이 아까보다 더 복잡해졌다. 이미 한 번 엉켰던 내 머릿속의 실을 누가 가위로 잘라버려서 작은 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랑 많이 닮았거든. 그래서 널 도와주고 싶어. 내키지 않으면 거절해도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 닮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려고 해? 내가 불쌍해?”

“안 불쌍해. 안타까운 거야.”

이제껏 나에게 도와준다는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외면이 전부 가식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기에. 그러나 이 애는 그 사실을 나보다 더 먼저 알아차렸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과 나도 진짜 나를 이제야 알았는데 어떻게 이태인이 나를 도울까라는 생각이 교차했다. 나와 닮은 사람이 있다는 말에 황당했고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내가 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태인이 나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허락했다. 이태인과 나의 행동들을 함께 고쳐나가기로 했다. 나의 의견을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기로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더 많은 것을 바꿔야 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가기로 했다. 우리에게 시간은 많고 급할 건 없으니까.

아무런 성과 없이 2주 정도 지났을까,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그 상대는 전부터 계속

우리 아버지가 학교의 재단 후원자인 걸 알고는 차석 입학도 다 지어낸 것 아니냐고 시시콜콜 시비를 걸어오던 애였다. 내가 이 말들에 반응하면 더 사이만 나빠질 것 같고 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항상 피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내가 부러워서 이러는 거면 유치하게 없는 소문 지어내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하라고 말이다. 내가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진짜 내 생각을 처음 말해보는 것 치고는 굉장히 잘 해냈다. 처음으로 화나서가 아닌 신기하고 얼떨떨해서 주먹을 꼭 쥐어보았다. 설레어서 심장이 쿵쿵 뛰었고 입가에는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다.

“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처음 말해보는 것 같아. 이거 하나가 이렇게 기분 좋은 거였어? 이제 개가 귀찮게 괴롭히지도 않아.”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노력하면 돼. 할 수 있지?”

“응. 나 진짜 노력할게. 고마워.”

이렇게 진짜 나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이 애는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 태인이가 이제 나에게서는 마냥 거슬리는 존재가 아니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편했다. 우리가 정말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갈등은 찾아왔다. 학교에서 반 친구 한 명이 나에게 숙제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다. 친구들끼리 서로 숙제 베끼는 것은 일상적이니까 그냥 빌려줬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이 친구는 폼수를 써서 내가 한 숙제를

자신이 한 것처럼 숙제를 검사 받았는데 선생님께 걸러버렸다. 당연히 걸릴 일이었지만 꼼수를 쓴 이 친구와 나는 같이 혼이 났다. 너무 억울했지만 빌려준 내 잘못도 있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반성문을 썼다.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문제는 태인이가 내가 반성문까지 썼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태인이는 화가 난 그 상태 그대로 나를 옥상으로 가는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정연우. 너 진짜 네 성격을 고쳐 볼 생각이 있긴 해? 피해자인 네가 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혼나고 재는 너한테 사과도 안 해? 재한테 사과를 받아야지. 널 보면 내가 더 답답한데 너 스스로는 안 속상해? 안 지쳐?”

“……너 꼭 말을 이렇게 해야 해?”

생각지도 못한 태인이의 격한 반응에 살짝 놀라긴 했지만 이렇게 직설적인 말들을 들을 것이라고는 더 생각지 못했다. 화가 났다. 태인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태인이의 말을 듣다가 너무 직설적인 말들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데? 네가 노력하겠다고,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잖아. 무리한 부탁이었으면 미안하다고 못 들어줄 것 같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무리한 부탁까지 들어줘서 너 자신이 곤란하게 만들어 연우야.”

“넌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진짜 이기적이고 못됐다. 너 예전에 그 애한테도 이렇게 네 멋대로 굴었어? 난 내 잘못도 있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벌 받은 거야. 빌려준 나도 잘못했으니까. 오

늘은 나도 내 마음대로 할래. 미안하다는 말 안 해.”

주먹을 꼭 쥐고 말을 하고는 먼저 반으로 돌아왔다. 태인이의 얼굴에 살짝 스친 당황스러움이 보였지만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내가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믿어 본 적이 없는 내가 이태인을 믿었고,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만의 착각이었나 보다. 나도 이런 내가 속상하고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행동이 나 혼자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너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다. 너에게만큼은 상처받고 싶지 않았는데 너에게 상처를 받았고 너에게 상처 주고 말았다.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나였는데 너에게 상처 주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에 나쁜 소리를 해버렸다. 마치 너무 높은 상처에 또 다른 상처가 덧입혀지는 것 같다. 자꾸만 가슴이 울렁거리고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시야가 물기로 가득 찼다. 오늘은 최악의 날이다.

그렇게 계속 태인이를 무시했다. 계속 나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오는 태인이를 똑바로 마주하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내 10년간 쌓아둔 감정의 골이 태인이로 향할까 봐, 도저히 마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태인이에 대한 속상함이었다. 처음으로 가장 의지가 됐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은 평소의 상처같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언제 이 상처가 아물지 예상할 수 없

었다. 상처를 지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내 삶은 다시 8살의 정연우가 된 것 같이 변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넓디넓은 방의 한구석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 우울해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가장 내 눈치를 보며 산 사람은 채영이일 것이다.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사람이기에 힘이 없는 나를 북돋아 주려고 애썼다. 채영이가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내가 채영이에게 받는 안정감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게 점점 태인이나 내가 멀어질 때 태인이는 나를 붙잡았다.

“시간 좀 내주라 연우야, 제발.”

나는 이태인이 수척해진 얼굴로 잠깐 시간 좀 내달라는 말에 화난 마음도 있었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커서 알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태인이를 무시하는 동안 계속 태인이의 말이 떠올라 상처받고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하는 패턴을 반복해서 걸으려는 무딘 척하느라 힘들었지만 태인이나 나만큼 힘들었다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기에 또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할 이야기가 뭐냐고 묻자 태인이는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더니 자신의 진심을 나에게 말했다. 진심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때의 태인이는 그만큼 절실히 보였기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미안해.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됐어. 네가 가장 힘들 텐데, 네가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내 이기심으로 너에게 너무 강요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애써 교복을 움켜쥐며 눈물을 참았다.

“나도 미안. 네가 나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 알아. 속상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다니 다행이다. 있잖아 연우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너처럼 강한 척하고 살아서 네 모습 누구보다 잘 알아. 저번에 닳은 사람 있다고 말한 거 그거 나거든. 이렇게 힘들게 너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잘한다는 것에 기준은 없거든. 나는 네가 지금도 충분히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너는 진짜 괜찮은 게 맞아?”

지금 이렇게 태인이가 나에게 너는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도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목이 꼭 막힌 듯이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때로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많이 힘들어서인지. 계속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데 나에게 공감해 주고 진짜 나를 알고 있는 태인이를 보면 자꾸만 약해지게 된다. 나의 힘들음을 태인이에겐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버린다.

“……아니, 나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금방이라도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 상처받기 싫어서 악착같이 버텼는데 또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 이렇게 내 모습을 숨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무서워서 놓지 못하겠어.”

“너는 누가 뭐래도 정연우야. 겁먹지 마, 너는 분명 너를 찾

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울게. 우리 같이 해보자.”

누구나 할 수 있을 뻔하디뻔한 위로지만 그 한 마디가 나에게 간절했기에 이 짐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어서 태인의 말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그런 사람. 혹은 가끔 넘어져도 된다고, 처음부터 일어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를 안아 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한다면 그게 태인과 내가 아닐까 싶다. 물론 가끔은 다투더라도, 서로 때문에 울고 아파하더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예전에 나 같은 약한 사람이었던 태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증후군을 이겨냈다고 한다. 이 증후군은 의지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을 잃어왔던 시간만큼의 노력을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

혼자가 아닌 둘인 우리는 진짜 정연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아직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서툰 나를 부정적인 감정도 표출할 수 있게 도와줬고 말을 거절하는 방법도 직접 거절을 해보면서 하나둘씩 알아나갔다. 그렇게 나는 나를 옥죄고 있던 착한 아이의 가면을 하나둘씩 벗어 갔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가면 뒤에 숨기고 살아서 벗기가 쉽지 않았다.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았다. 선생님들의 칭찬, 친구들의 나를 좋아하는 눈빛 모두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당당해지고 싶었다, 진짜 ‘정연우’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숨지 않고 나를 직접 대면

했다. 우울함으로 멍쳐진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내가 봐도 내 모습은 답답했다. 내가 나를 이렇게나 방치했었구나, 약하고 또 약해도 나는 나인데 나를 피해버렸구나. 제일 가슴이 아팠던 사실은 여덟 살의 이 아이가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진주어와 가주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처럼 여덟 살의 진짜 정연우와 열여덟 살의 가짜 정연우도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점점 내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나도 어색했지만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장 어색해했다.

“반장! 내가 조회 때 숙제 내는 걸 깜빡해서 그러는데 선생님 책상에 이것만 올려주면 안 될까? 부탁할게,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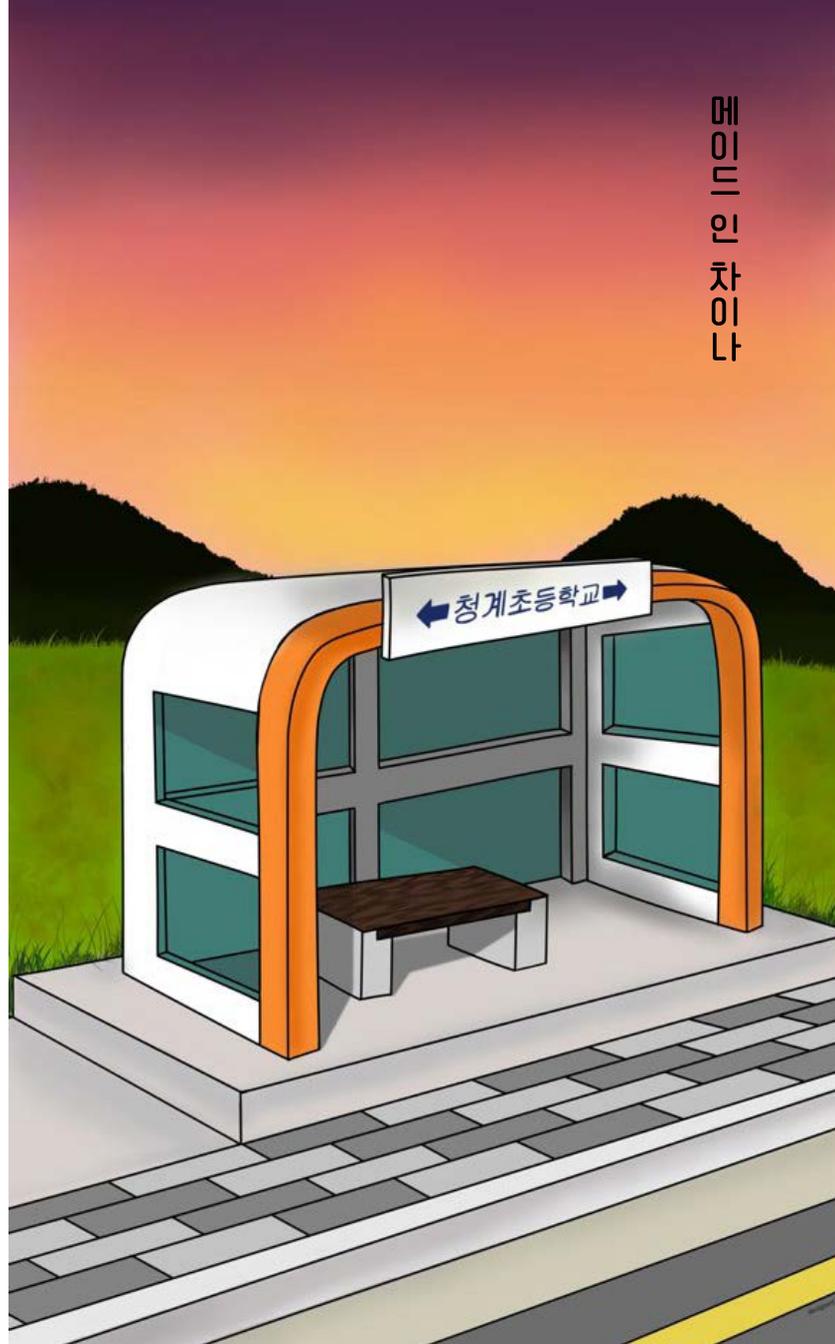
“미안해. 내가 그것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것 같네.”

“아…… 알겠어.”

하지만 이게 진짜 정연우인 나이기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더 이상 내가 싫지 않았다. 남들에게 보이는 당당한 내 모습에 괜히 뿌듯해졌다. 특히 채영이에게는 당당해진 모습이 더 멋있고 보기 좋다는 그런 칭찬도 받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 안에 제멋대로 자라나던 잡초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새싹이 돌아나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진전이 있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나만 혼자 사랑에 목말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애초부터 이렇게 내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변할 관계는 아니었다. 가족의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아버지께서도 내게 다가오셔야 했다. 쉽게 바뀌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아쉬긴 했어도 다른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었으니 괜찮았다. 가까운 곳에 있던 진짜 친구 채영이와 새롭게 알게 된 친구 태인이가 내게는 소중한 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우리의 열여덟 번째 가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버스 창문에 기대어서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있었고, 내 옆자리에는 당연한 듯이 태인이가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할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모든 사람은 비슷해 보이나 너무나도 다르다. 사람의 생김새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모두 다르다. 그래서 누군가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다. 우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된다. 나는 오늘도 진정한 나를 찾으러 가는 길이다.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우리의 꿈에 한 걸음 내딛는 길이니까.



주말부터 경남 일부지역과 중부 지방에 천등과 번개를 동반한 5~30mm의 요란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가방 속에 우산 하나씩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장마철에 접어……. 거실 한 가운데에 놓인 TV가 혼자 요란하게 떠들어 댔다. 어느새 둘은 밥 먹던 것을 멈추고 입에 젓가락을 문 채로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곧 장마네.”

연준이 걱정스레 입을 열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괜찮아. 어차피 안 올 것도 아니고.”

태연한 척 말하는 도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또 괜찮은 척. 도아는 표정을 숨기는 데에 약했다. 적어도 연준의 눈에는 다 보였다.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되려나.”

연준이 급히 핸드폰을 들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마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일기 예보를 검색하는 연준의 손이 분주했다. 도아가 곧 죽게 생겼는데 밥이 무슨 소용이랴. 둘의 관심이 식사에서 사라진 지는 한참 오래였다.

“말이 다 다르네. 2주 뒤에 온다고 하는 데도 있고 더 빨리 올 것 같다고 하는 데도 있고.”

기사들의 내용이 다 달랐다. 하긴, 돌팔이 기상청이 하루 전날 까지 몇 번씩 말을 바꾸는데 벌써부터 정확할 리가 없었다. 확실한 건 비가 왕창 온다는 것이었다.

“괜찮겠지. 지금까지 비 왔을 때 오빠 있으면 괜찮았잖아.

이번에도 그러겠지.”

도아는 일부러 괜찮은 척 제 기분을 티내지 않으려 들었다.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할 처지인데. 애써 웃으며 넘기는 도아가 안쓰러웠다. 우리가 울여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연준은 생각했다.

비가 오기 전이라 그런지 날이 구졌다. 중국 발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나 뭐라나. 오늘의 날씨가 어찌구 저찌구 늘 어놓는 기상캐스터를 뒤로 한 채 연준과 도아는 집을 나섰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안 좋다. 마스크라도 쓰고 갈까?”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탁한 공기에 연준이 인상을 찌푸렸다.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왜? 좋은데. 꼭 중국 온 것 같아.”

도아는 혼자 천하태평이었다. 누구나 외출을 망설일 날씨를 보고 대뜸 오예! 중국! 부터 외치고 보는데 정말 또라이 같았다.

“너는 진짜 그제 뭐 소리야. 중국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지.”

도아의 엉뚱한 소리에 연준이 저절로 미간을 좁혔다. 가끔씩 중국 얘기만 나오면 애가 반쯤 돌아서 헛소리를 해대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왜애. 그냥 중국 느낌 나고 좋은데.”

오히려 도아는 말을 늘어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역시 핀잔 줘준다고 먹힐 애가 아니었다. 확실히 도아는 이상한 면모가 있었다. 연준은 더 이상 말 붙일 힘도 없었다. 이런 도아의 모습

에 완전히 적응된 연준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어차피 더 나불대봤자 제힘만 빠질 게 뻔했다.

\*

오늘도 햇볕이 뜨거웠다. 이례 없는 찜통더위에 공기가 후끈했다. 도아는 길을 걷는 내내 못 견뎌겠다는 말만 서른 번 넘게 중얼거렸다. 더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얼마나 더 남았어? 연준은 설 새 없이 나불거리는 도아의 입을 손으로 막고 싶은 마음을 꼭 참았다. 오토바이를 타면 10분 만에 도착했을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한 건 순전히 도아 때문이었다.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도아와 함께 연준은 오늘도 출근길을 걸어갔다.

연준은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에어컨부터 켰다.

“오빠. 우리 라면 먹자.”

아침에도 미역국으로 밥을 똑딱 해 먹고선 또 먹을 걸 찾았다. 제법 배가 부를 법도 한데 은근히 먹성이 좋았다. 어쩌면 편의점에 있는데 배가 고파지는 게 당연한 수순일지도 몰랐다.

“뭐 먹을 거야?”

도아가 라면 코너로 발걸음을 옮기며 물었다.

“난 오징어짬뽕.”

“오징어짬뽕? 우웻.”

짜파게티와 오징어짬뽕을 집어 들며 도아가 인상을 구겼다.

“우웨이? 오징어짬뽕이 어때서!”

난데없는 도아의 오바이트 시늬에 연준이 언성을 높였다.

“그거 엄청 맵던데? 나 옛날에 친구 거 국물 한번 뺏어 먹었다가 죽을 뻔했잖아.”

꽤나 진지하게 경험담을 늘어놓는 도아에 연준이 코웃음을 쳤다.

“뭘 소리야. 라면은 국물 맛이! 짜파게티가 더 별로거든?”

서로에게 취향 존중 따위는 없었다. 나이는 스무 살 넘게 먹은 놈들이 싸우는 건 놀이터에서 술래잡기하는 애들보다 더 유치했다. 뜨거운 물을 받아다 놓고 삼분 내내 싸우는 꼴이 꼭 애 같았다. 결국 둘의 언쟁을 끝낸 건 삼분을 알리는 타이머였다. 타이머가 울리자마자 둘은 약속한 듯이 말이 없어지더니 다 먹고 나서야 다시 시끄러워졌다.

“역시 짜장이 최고다. 난 나중에 꼭 중국 가서 짜장면 먹을 거야.”

도아가 입에 묻은 짜장을 닦으며 젓가락을 놔다. 이제 좀 배가 부른지 입이 호선을 그렸다.

“엥? 중국에는 짜장면 없어.”

“짜장면이 없다고? 짜장면은 중국 음식 아닌가?”

도아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있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이랑 전혀 달라. 맛도 아예 다를걸?”

“뭐야. 먹어 봤어?”

무안에서 나고 자라 해외여행 경험조차 전무한 한국인 최연준이 중국식 짜장면을 먹어 봤을 리가 없었다.

“아니? 당연히 안 먹어봤지.”

너무나 당연하게 안 먹어봤다고 말하는 연준에 도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뭘야. 꼭 먹어본 것처럼.”

김이 썩는지 도아가 입을 땃 발 내밀자 연준은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실실했다.

“그럼 네가 나중에 중국 가서 먹어보고 후기 알려줘. 뭐가 더 맛있는지.”

“오케이. 내가 짜장면 무시한 거 꼭 후회하게 한다.”

별것도 아닌 일에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게 말하는 게 웃겼다. 도아는 가끔 이상한 데에 사활을 걸었다.

“내가 언제 무시했어.”

컵라면 뚜껑을 4등분으로 접으며 연준이 맞받아쳤다.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었다.

“아까 그랬잖아!”

또다시 투닥투닥. 주야장천 싸웠다. 둘 다 정신 연령이 미취학 아동쯤이나 될 것 같았다. 그래도 그저 좋았다. 둘이 같이 있을 때면 둘은 현실을 잊고 어린 애가 되어 놀고 싶은 만큼 놀았다. 어린이들은 끝도 없이 놀고 싶어 했고 둘에겐 끝이 없었다. 한여름의 타오르는 태양 아래 지치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 그래도, 그저 좋았다.

알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도아는 시끄러웠다. 제법 치저 조용할 법한데도 다리가 아파 죽겠다느니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등 입을 나불댔다. 집에서 30분도 넘게 걸리는 편의점을 걸어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붙는 소리였다.

“넌 진짜 당장 죽어도 입만 살아 있겠다.”

결국 연준이 못 참고 한마디를 거들었다.

“왜. 나 정말로 죽을 거 같애. 구급차에 실려 갈 거야.”

축 늘어진 도아가 나무늘보 마냥 걸어갔다. 고개를 왼쪽으로 꺾은 채 머리를 헤집어 걸어가는 꼴이 흡사 좀비 같기도 했다. 거의 죽어가는 와중에도 한 걸음씩 내딛는 악바리 근성이 좀비라 쳐줄 만 했다.

“아, 구급차 하나까 우리 처음 만난 날 생각난다. 나 그때 진짜 어처구니없었는데.”

갑자기 연준이 키득거리며 옛날 일을 꺼냈다. 벌써 둘이 처음 만난 지도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자 도아의 얼굴이 빨개졌다. 한 달 치 이불 킁 감을 상기시켜준 연준이 알미웠다.

“아! 그때는 솔직히……. 그렇게 갑자기 오토바이 봤는데 얼마나 당황한 줄 알아?”

도아가 새된 소리로 투덜거리자 연준이 황당하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야, 내가 더 놀랐거든? 집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딱 쓰러졌다고 생각해봐. 나정도 되니까 바로 구급차 불렀지 다른 사람이었어 봐. 놀래서 같이 기절했을 걸? 황천길 메이트

될 뻔했다고.”

억울한 마음에 연준의 입에서 속사포처럼 말이 쏟아져 나왔다. 잔뜩 흥분한 연준을 보고 결국 도아가 수그렸다.

“그건 좀 인정. 아니 나는 시골이라 오토바이 없을 줄 알았지.”

구차한 변명이 따라붙었다.

바보 같게도 완벽한 도아의 실수였다.

“뭘 소리야. 오토바이는 시골에 훨씬 많지. 여기가 그나마 없는 편이고.”

“서울 촌놈이 그걸 어떻게 알아. 시골에 오토바이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이나 해 봤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인천으로 갈 걸 그랬나 봐.”

도아의 면박에 연준이 웃음을 내뱉으며 반박했다.

“인천으로 갔으면 나를 못 만났겠지?”

“아, 예. 정말, 다행이네요.”

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입을 삐죽이는 도아에 연준도 덩달아 눈을 흘겼다. 그렇게 서로 신경전을 펼치기를 십 초, 곧 도아가 깔깔 웃었다.

“아이, 그래도 오빠 만나서 꿈 안 꾸니까 됐죠.”

그제야 연준도 표정을 풀고 피식 웃었다.

“그러게. 요즘은 거의 안 꾸지?”

“음. 거의.”

악몽. 다섯 달 전만 해도 도아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놈이었다. 서도아. 이 세 글자로 불러야 할 이름이 유가족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다. 부모님이 빗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운명하셨다. 지금까지라면 식탁에 모여앉아 김치국을 끓여 먹으며 부모님과 중국 여행 갈 계획이나 짜고 있었을 도아는 졸지에 혼자 육개장이나 먹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고는 늘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는 걸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도아가 알기나 했을까. 그날 밤 도아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첫날은 우느라 밤을 지새웠고, 그 다음날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정신 줄을 놓고 있었고, 그다음 날엔 악몽을 꾸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오토바이 한 대가 자신을 들이받는 꿈이었다. 오토바이를 피해 끝없이 도망쳤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끝까지 흠뻑 젖은 도아를 따라와 세상 밖으로 끌고 갔다. 도아는 언젠가 이 꿈이 끝날 줄만 알았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지치지 않고 도아를 따라다녔다.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힘들었고 점점 더 지쳐갔다. 이 시궁창 인생의 종지점은 어디일까. 결국 도아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도저히 엄마 아빠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었다. 악몽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다. 살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중국 여행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 세워놓은 여행 일정을 이대로 무르기엔 너무 아까웠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 버린다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승천도 못 하고 떠도는 처녀 귀신이 될까봐 아쉬웠다. 아직은 죽기에 일렀다. 더 이상 오토바이가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미처가는 와중에도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인간의 지

독한 생존 본능이었다. 수없이 고민하고 악몽을 꾸고 올라 치기를 반복한 끝에 도아는 무안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무안은 조용했고, 공황이 있었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따뜻했던 삼월 초, 울여름이 뜨거울 징조였다. 도아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마지막으로 서울과의 안녕을 고한 후 무안으로 내려왔다. 시골 주택가는 한적했다. 끝없이 펼쳐지는 논밭을 배경 삼아 도아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청계초등학교 맞은편의 도롯가에서 있는 집은 도아네와 옆집뿐이었다. 다른 집들과 동떨어진 게 전 주인이 도로가에 새로 집을 지은 탓이라는 걸 무안 살이 1일 차인 도아가 알 리 없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도아는 앞으로의 행복만 그렸다. 새 출발이라 그런 건지 평소보다 기분이 나아서 그런 건지 몰랐다. 이제는 무서울 게 없을 것만 같았다. 행복한 상상이 겁대가리를 집어삼킨 순간이었다.

서울에서는 바깥에 나가기도 무서워 모든 걸 집에서 해결하던 도아였는데. 무안으로 내려 온 지 하루 만에 겁 없이 집 맞은편 슈퍼에 가다 연준이 모는 오토바이를 봤다. 고작 집 앞 슈퍼 한번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나 세상을 원망했다.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린 도아를 연준이 신고했다. 둘의 첫 만남이었다. 응급실에 실려 가는 중, 무슨 일인지 도아는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고 잠들었다. 그 옆엔 연준이 있었다. 아무리 이름 있는 병원의 잘나가는 의사를 만난 들 정신을 잃었을 때면 더 심해졌던 악몽.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희망에 대한 믿음 하나로 도아는 마지막 동

아줄을 아등바등 붙잡았다. 새줄 현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알고 보니 옆집 사는 남자였던 연준과 친해질수록 도아는 꿈에서 점점 더 벗어났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다. 그냥 연준과 있으면 꿈이든 패닉이든 모두 잤아들었다. 이유 따위야 알게 뭐가. 그런 건 그닥 중요치 않았다. 도아의 사정을 알게 된 연준은 매일 출근할 때 타던 오토바이를 과감히 포기하고 도아를 돕기 시작했다. 사람이 참 무섭게 생겨먹어서는 생각보다 정이 많고 착했다. 바같이 두려웠던 도아는 연준 덕분에 점차 바깥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어 문제집이나 중국 로맨스 소설 따위의 책이나 보며 집에 틀어박혀 살던 도아는 연준의 집부터 시작해 이제는 편돌이인 연준을 매일 따라다녔다. 장족의 발전이었다. 연준과 더 가까워질수록 도아의 상태는 더 좋아졌다. 그즈음 도아와 연준은 서로 마음을 터놓았다. 정말 비슷했고,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나름 죽이 잘 맞았다.

이제 도아는 중국 여행쯤은 제 가슴 한 편에 개켜두었다. 나란히 걸어가는 연준의 그림자를 밟았다. 저녁노을이 타오를 듯 붉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아직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요. 끝내주게 잘살아 볼게요. 이제 도아는 혼자가 아니었다. 도아 옆에는 연준이 있었으니까. 도아는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

편의점에 우산이 하나둘씩 팔리기 시작했다. 곧 대대적인 장마가 올 거라고 다들 우산 챙기시라고 말하느라 기상 캐스터 입엔 침이 마를 날이 없었다. 평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을 장마가 이젠 연준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았다. 그런 연준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아는 편의점 테이블에 죽치고 앉아 하겐다즈나 퍼먹기 바빴다. 그러나 사실 제일 불안해질 사람은 도아였기에 연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웃을 수 있을 때 양껏 웃어놔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연준의 시선에 도아가 말갭게 웃어 보였다. 웃는 게 예뻐다.

주말이 다가왔다. 무더운 여름에 습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습해진 공기 탓에 옷이 끈적끈적한 몸에 잘 달라붙었다. 땀과 엉겨 붙어 온몸이 찝찝했다. 장마가 다가오면서 비가 오는 횟수가 잦아졌다. 관찮을 거라며 되려 연준을 안심시키던 도아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자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다. 입술은 하도 물어뜯어 부르튼 지 오래였고 벽을 긁어댄 탓에 손끝도 너털너털했다. 다시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잠에서 잘 깨는 바람에 눈 밑이 어두웠다. 빗소리가 끊어질 때마다 오토바이는 속도를 높여 더 빠르게 따라왔다. 이 지겨운 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현실에도 꿈에도 도아에게 더 이상 도피처가 없었다. 이걸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던 거야. 도아는 행복해질 수 없었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용왕님, 알라신님 누구든 간에 나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 이제 행복은 바라지도 않을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20년 가까이 무교

로 살아온 놈이 하루 빌어 본다고 누가 들어나 줄까. 빌어먹을 나무아미타불은 도아를 구해주지 않았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 기간이 길고, 강우량도 많을 거라는 기상청의 예측은 도아를 더욱 괴롭게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우악스럽게 몰아쳤다. 십 년을 물에 담긴 구름이 물을 털어내듯 비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도아는 연준의 집에서 머물렀다. 도저히 도아를 혼자 둘 수 없는 연준의 탓도 있었지만 도아 혼자서 집에 있을 수도 없었다. 별 수 없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나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은 가운데……. 장마 예보는 계속 되었다. 서러웠다. 연준과 도아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 없이 비 얘기만 하는 기상캐스터가 미웠다. 저 먹고살기 위해 일할 뿐인 기상 캐스터가 무슨 잘못이 있으랴. 연준은 그냥 TV를 껐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비가 올 거라 알려 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이 재난 문자로도 충분했다.

연준의 집에 음악소리가 울렸다. 연준네는 평소에도 작지 않은 소리로 음악을 틀던 연준네였다. 그 정도면 대부분의 잠음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모든 창문을 꼭 닫고 노랫소리를 최대로 키웠다. 노래가 아니라 소음으로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그럼에도 창문을 두들기는 빗방울은 그칠 줄을 몰랐고 노랫소리를 덮었다. 이어플러그라도 사와야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결국 다음날 연준이 집을 나섰다. 연준 없이 집에 혼자 있

는 도아의 온 신경이 곤두섰다.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았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연준이 없으니 악몽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다. 오토바이가 바람을 가르고 거침없이 달렸다. 비가 고이다 못해 하수구를 흘러넘쳤다. 오토바이가 급정거했다. 거칠게 튕겨 나간 오토바이가 산산조각이 났다. 순식간에 주변이 밝아졌다. 어두운 밤에 기세등등하게 타오르는 불이 도아의 심장을 태웠다. 숨이 가빠서 연준만 애타게 찾았다. 그냥 가지 말지 그깟 이어플러그가 뭐라고. 그깟 거 끼워봤자 어차피 똑같은 텐데. 오빠랑 있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다급한 마음에 핸드폰을 찾았다. 당장 오라고 목소리라도 들어야 살 것 같아서. 허겁지겁 바닥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 도아는 그제야 자신에게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무안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시끄럽게 울리는 메신저 알림에 신경질이 나서 냅다 쓰레기통으로 던진 게 핸드폰이었다. 줄리엣이 로미오를 기다릴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무안에 온 이래로 처음으로 후회를 했다. 더 이상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휴대폰도, 엄마도, 아빠도, 행복도, 최연준도 없는 서도아. 되는 게 없으니 자연스럽게 사고가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한 시간 후 연준이 물이 똑똑 떨어지는 비닐 봉투를 들고 나타났을 때, 도아의 시간은 이미 십 년이 흐른 후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연준을 붙들고 목 놓아 울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중국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못 버틴다고, 안 버틴다고. 비가 너무 싫다고, 제발 오토바이 좀 이 세상에서 치워달라고. 눈물로 중국이 잠길 만

큼 서럽게 울었다. 다 혈은 손끝을 깨물었다. 벗겨진 피부에 피가 맺혔다. 엉킨 머리칼이 바닥을 나뒹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준과의 행복을 그렸던 도아는 이젠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한국이 싫었고, 오토바이가 싫었고, 비가 싫었고. 애타게 끌어안은 베개 귀퉁이로 상표 쪼가리가 보였다. 큼직한 글씨가 박혀있었다. 너무 오래되어 프린트가 많이 지워졌지만 도아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메이드 인 차이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은 중국뿐 인가 자문했다. 과거에 놓친 꿈이라도 붙잡아 볼까. 달리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무안에 내려온 이유가 무색해지는 찰나였다. 또다시 울음을 내뿜었다. 추억만 남아버린 이곳을 미치도록 애증했다. 베개가 도아의 눈물에 축축이 젖어 들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나도 중국에 가고 싶어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여기서 구해주면 안 돼요? 아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 나만 두고 가버린 거야. 애써 달래보는 연준의 얼굴도 어두웠다. 도아의 앞에서 차마 한숨을 내뿜을 수가 없었다. 저 자신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쳐갔다. 이제 비와 오토바이라면 신물이 났다. 그렇지만 이대로 손을 놓아버리기엔 도아가 너무 안쓰러웠고 이젠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도아일 테니까. 어쩔 수 없었다. 연준은 다시 도아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러나 이제는 소용이 없었다. 도아의 악몽과 패닉은 멈출 줄을 몰랐다. 공포가 엄습해왔고 이제 거의 일주일도 넘게 계속되는 장마에 도아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다. 덩달아 연준의 속도 느렸다. 뭘 더 해줘야 네 입에서 괜찮

다는 말이 나올까. 네가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안 읍내 한복판에서 꿩과리라도 두들길 수 있다고. 손을 잡아줘도, 등을 토닥여줘도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수없이 반복해도 연준이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도아는 오히려 더 큰 트라우마에 잠식됐다. 연준의 속삭임이 도아의 귓가를 짹 메우는 굵은 빗줄기 소리에 비해 너무 작았던 걸까. 충혈된 도아의 눈이 발갳다. 며칠 내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다. 받은 숨을 내쉬며 혈떡이는 도아를 보며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비가 어서 그치기를 비는 것뿐이었다.

\*

절대 그치지 않을 것만 같이 쏟아지던 비가 그쳤다. 오늘 날이 맑은 걸 보니 적어도 삼일은 비가 오지 않을 요량이었다. 떠들썩했던 빗소리가 그치니 도아의 숨소리가 잘 들렸다. 간만에 잠을 자는 도아의 숨소리가 편안했다. 마치 죽은 듯이 쓰러져 자는 도아의 가슴께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왜인지 모르게 연준도 마음이 편했다.

“일어났어?”

밀린 잠을 몇 시간 동안 몰아 잔 도아는 오후 9시가 다 되어 눈을 떴다.

“지금은 괜찮아.”

애써 대답하는 도아의 목소리가 잠겨있었다. 기나긴 장마

때문에 생활 리듬이 깨진 데다가 아직 피곤기가 가시지 않아서 그런지 골이 울렸다. 멍한 머리를 부여잡고 도아가 겨우 몸을 일으켰다.

“조금만 기다려봐. 배고프지.”

연준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부엌 쪽으로 향했다. 며칠 새 잠도 밥도 잘 못 챙긴 도아가 안쓰러워 즉석식품이라도 데워다 줄 생각이었다. 하필 이럴 때 텅 빈 냉장고에 한숨이 나왔다.

“오빠.”

도아가 대뜸 연준의 말꼬리를 잘랐다. 말투가 평소와 다르게 낮고 차분했다. 연준은 그냥 아파서 그런 거라고 치부했다.

“나랑 밖에 나가자.”

거의 일주일 만에 밖에 나와서 그런지 밤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도아는 아직 바깥이 싫었다. 그래도 집에만 머물다 오니 개운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내 비가 쏟아져서 아직 비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다. 비린내가 역했다. 집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들고 평립회관 정자에 자리 잡았다. 밤바람에 도아의 검은 머리가 흩날렸다. 열게 스치는 바람에 풀이 나부끼는 소리가 들렸다. 귀뚜라미가 시끄럽게 여름밤을 울렸다. 둘만 고요했다. 긴 정적 끝에 도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답지 않게 뜬을 들었다. 평소와 사뭇 다른 분위기에 연준도 쉽사리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답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 중국 갈까 봐.”

며칠을 끄공 앓더니 나온 말이 결국엔 중국이었다. 그 말이 장난 같지 않아서 연준이 반문했다. 아니길 바랄 뿐이었다.

“중국?”

“나 2주 뒤에 중국에 갈 거야.”

좀 더 확신에 찬 말투였다. 한결같았던 중국 타령. 전에는 백 가지 버킷 리스트 중 한 오십 번째에나 적을만한 소원쯤으로 넘겼다면, 이제 연준은 알고 있었다. 도아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빈말을 하지 않았다. 말에서부터 오래 고민한 티가 역력했다. 그저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조금이라도 언질 해주었더라면. 어쩌면 천둥 번개가 칠 때 했던 말들이 그냥 공포심에 했던 말이 아니었나. 아무 말인 줄 알고 진즉 알아채지 못했던 연준이 스스로를 원망했다. 괜히 한 번 더 물어보아 확인 사살만 한 꼴이 되었다. 불안함에 연준이 도톰한 입술을 물어뜯었다.

“중국에 왜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랑 약속했었어. 올해 여름에 중국 여행 가기로. 나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볼 수도 없는 걸 자꾸 보고 싶단다. 애써 달래 봐도 힘들 걸 알았다. 속이 뒤틀렸다.

“꼭 가야 해? 그냥 나랑 계속 있으면 안 돼?”

대답이 없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연준은 애가 탔다. 구태여 숨길 생각도 없었다.

“나랑 있자. 여행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나랑 나중에 같이

가자.”

애원하는 목소리가 퍽 애절했다. 아니면 떨리는 걸지도 몰랐다.

“오빠. 나 이 비가 너무 싫어. 오토바이가 자꾸 나를 따라와. 중국에 갈 거야. 중국에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기로 했던 곳도 가보고 엄마 아빠를 만날 거야.”

도아는 하늘만 바라봤다. 시선이 별들을 쫓았다. 새까만 무안 밤하늘에 뜬 별들을 이어 중국을 그렸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왜 자꾸 그래? 제발 좀! 도아야, 서도아. 너는 나 없이 잘 수 있어? 너 나 없으면 잠도 못 자잖아. 중국에서 비가 오면 어떡할 거야. 북경 시내엔 오토바이도 많이 다닐 텐데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너는 나 찾을 텐데. 내가 날 찾아도 거긴 내가 없는데 어떡해! 다시 여기에 못 돌아오면 어떡해…….”

운동 연준의 이야기였다. 최연준 없이 살 수 없는 서도아. 최연준 없이는 잠도 못 자는 서도아. 거짓말. 사실, 서로가 없이 살 수 없는 건 도아가 아니라 연준이니까. 서도아가 웃을 때 최연준은 기뻐고, 서도아가 울 때 최연준은 속상했고, 서도아가 악몽을 꿀 때 최연준은 괴로웠고, 서도아가 장난칠 때 최연준은 즐거웠다. 서도아와 함께일 때 최연준은 잠시나마 싸구려 인생을 잊었다. 결국 최연준의 세상엔 서도아가 꼭 들어차서 서로가 없는 세상을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었다. 녹을 대로 녹아 초코 우유가 되어버린 빠빠코를 쥐 연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손을 꼭 쥐 탓에 힘줄이 잔뜩 불거졌다. 멍한 정신을

잡으려 애썼다. 머릿속이 하얗다. 두려움이 연준을 좀먹었다. 도아가 차분히 손을 잡았다. 손이 찼다.

“다 관찮을 거야.”

떨고 있는 연준에 비해 도아는 너무도 무덤덤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아야…….”

애써 울음을 참는 연준의 목이 메었다. 연준의 발간 눈시울을 도아는 볼 수 없었다. 밤이 어두웠다.

“오빠. 내 인생은 사고가 난 것부터 말이 안 됐어. 세상은 안 될 게 없어. 나 진짜 살고 싶어요, 제발. 오토바이도 없고 비도 안 오는 곳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나랑 살자. 나랑 있으면 관찮았잖아. 중국? 짜장면 먹으면 되지. 짜파게티? 볶음밥? 탕수육? 다 사줄게. 여기도 미세먼지가 가득해.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여기 이렇게 많은데. 네가 그랬잖아, 꼭 중국 같다고. 여기가 우리의 중국이야. 당장 우리 집 현관에 있는 슬리퍼도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한국인들도 중국산 김치나 뜯고 있는데 진짜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세상이 다 가판데! 제발 그냥 나랑 있자. 짝퉁 중국이라도, 나랑 있으면 관찮을 거야. 소리치는 연준의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다.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왔다. 눈물이 잔뜩 상기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떨리는 속눈썹이 젖어 들어갔다. 울음이 멈추질 않았다. 멍한 눈물 탓에 모든 게 흐려보였다. 도아가 그랬고 우리의 미래가 그랬다. 불안함을 건잡을 수가 없었고 중국엔 목이 쉬었다. 끝내 도아를 잡을 수가 없었다. 너의 마음은 이미 중국으로 떠나 있었는데. 이미 가짜 세상을 포기해버린

너에게 내가 달리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도아에겐 오 토바이나 비 오는 날 따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악몽이었음을, 연준은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정자가 젖어있던 탓에 엉덩이가 축축이 젖었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비 따위는 알 바가 아니었다. 연준이 먼저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가끔 빗물 웅덩이를 밟는 소리만 찰박거렸다. 웅덩이에 물방울들이 튀겨 연준의 신발이 젖었지만 연준은 흔한 불평 하나 하지 않았다. 도아는 제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준은 굳이 붙잡지 않았다. 인사도 없이 헤어졌다. 도아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심란했다. 괜히 제가 사람에게 정을 붙여 일을 키웠다. 혼자 남은 사람은 있던 이의 빈자리를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도아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았다. 도아 역시 말은 호기롭게 했어도 내심 아쉬웠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쳤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짝퉁 중국에서 즐거웠으면 되었다고. 더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 덕에 소강할 테니까. 도아는 잠을 청했다.

\*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는 한 시 출발이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치곤 들고 가는 짐이 우스우리만큼 적었다. 아무렴 어떨까. 짐이 많은 적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이 될 터였다. 도아가 짐을 문밖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이리 줘. 내가 듣게.”

말없이 짐을 챙기던 연준이 도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도아가 연준에게 짐을 건넸다. 오늘따라 묵묵히 할 일만 하는 연준의 속을 좀체 가늠할 수 없었다. 연준이 문을 나서자 도아가 뒤를 따랐다.

“아, 맞다.”

현관 문턱을 넘던 도아가 깜빡 잊고 있었다는 듯 도로 들어갔다.

“뭐 두고 왔어?”

신발을 다 신고 대문을 나서던 연준이 뒤를 돌아봤다. 잊어버린 물건이 있나 헤아렸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다.

“응, 잠시만.”

후다닥 달려가 거실 액자에 꽂혀있던 연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아 뭐야. 그거 가져가게?”

“응. 지갑에 끼워 둘 거야.”

마치 제 부적이라도 되는 것 마냥 굴었다. 연준의 집을 드나들 때마다 보았던 사진. 언젠가 연준에게 이게 무슨 사진이냐 물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도아의 기억을 스쳤다. 아직 존댓말을 쓰며 뽀뽀하게 사진 구경이나 하던 때가 생각나 웃음이 났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다는 게 새삼 신기했다. 약간 빛바랜 연준의 사진이 도아의 지갑에 고이 접혀 들어갔다. 추억 팔이나 할 때 펼쳐 볼 생각이었다. 사진 속의 연준이나 도아의 앞에 서있는 연준이

나 안색이 좋았다. 몇 개월 전 지금에 비하면 뚱한 낫빛일 때의 연준을 반추하며 추억 팔이를 그만두었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었다. 빨리 정류장으로 가야 했다. 배차 간격이 긴 바람에 이번 버스를 놓치면 꼬박 세 시간을 걸어가야 했다.

“티켓 챙겼어?”

도아의 물음에 연준이 손에 든 여권을 흔들며 보였다. 초록 여권 사이로 비죽 튀어나온 티켓이 보였다. 비가 그치자마자 당장 발급받아야겠다고 공항으로 달려간 결과였다. 도아의 황소고집은 여전했다.

“진짜 같이 갈 거야?”

“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재차 묻는 도아에도 연준의 결심은 변함이 없어 보였다. 로미오는 약병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한 후 독약을 들이켰다. 줄리엣이 없는 세상은 살 가치가 없었다. 연준은 도아와 함께 가고 싶었다. 그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추악한 지옥이라도 나는 괜찮아. 우린 다음 생도 함께할 거잖아. 꼭 다문 입술에 연준이 못다 전한 진심이 내비쳤다. 도아는 말없이 웃을 뿐이었다. 티없이 해말간 웃음. 그토록 그리웠던 웃음이었다.

둘은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굳이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림기야 하겠지만 아쉽지는 않았다. 내딛는 걸음마다 끌어오르는 시멘트 바닥의 열기에 타오를 것 같았다. 뜨거운 여름의 피약별이 둘을 내리쬐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이 여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갈 터였으니까. 맞잡은 두 손이 뜨거웠다. 여름이었다.



특별하지 않은

좁은 방 안에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는 죽은 금붕어처럼 제 앞에 늘어진 것의 목덜미에 손가락을 가져다 댄다. 방금까지 펄떡거리던 맥박이 어느새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손 아래로 찬찬히 식어가는 피가 느껴졌다. 분노로 반질거리던 그의 눈동자에 생기가 빠져나갔다. 조용히, 죽어갔다. 마치 처음부터 죽어있었다는 듯이. 여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버섯하게 갈라진 목소리에서 피 냄새가 났다. 곧이어 붉은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이영은 우산을 고쳐 들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비가 오는 게 참 이상했다. 차가운 빗물이 운동화 아래로 찰박거렸다. 우산 아래로 슬쩍 빠져나온 어깨 끝이 눅눅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경쾌한 알림음이 빗소리 사이를 갈랐다. 거주장스러운 우산을 목과 어깨 사이에 끼고 휴대폰을 꺼내자 메시지가 와있었다.

[어디쯤이세요?]

[근처예요.]

이영은 짧게 답장을 마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J는 몇 달 전부터 이영의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던 사람이었다. 당신의 꿈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이영은 그 한마디에 흥하고 마는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나보고 싶다는 J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불안하긴 한지, 생전 가본 적 없는 동네의 온종일 사람이 많은 카페를 택

했다. J는 흔쾌히 이영이 고른 장소로 나오겠다고 했다.

[저 지금 카운터예요.]

[지금 주문하고 계신 분 맞아요?]

[네. 맞아요.]

제 또래의 여자에 하나가 이쪽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영이 자리에 앉자마자 J는 발랄하게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J, 아. 이지호예요.

……권이영입니다. 맞잡은 손이 축축했다.

이영은 그저 간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를 휘적거릴 뿐 인데도 지호는 자신이 이영과 동갑인 열여덟 살이라는 것, 저는 저기 고양시에 살며, 부모님은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계시고, 저는 한국에 있겠다고 버티다가 이제는 정말 학교를 자퇴하고 외국 학교 입학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시답잖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 많은 말 중에 정작 이영이 바라는 화제는 나오지 않았다. 이영은 초조한 기분으로 빨대를 찾이겼다. 앞에 앉은 지호도 별반 다를 바는 없는지 뜨거운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손이 희게 질리도록 꽉 붙잡고 있었다. 자기가 불러냈으면서 무슨 눈치를 저리 보는지 도통 모를 노릇이었다. 이영은 비에 젖어 한껏 굽슬거리는 긴 머리를 괜히 만지작거리며 은근하게 지호의 행동을 좇았다. 본인의 두서없는 헛소리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키득거리는 지호의 입가가 바르르 떨렸다. 이영의 눈이 한층 더 가늘어졌다. 재, 연기하나?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기에 저러는지. 이영은 덜컥 겁이 났다.

허무하게 죽어가는 시간에 이영의 인내심에 금이 가기 시

작했다. 지호가 은근슬쩍 말을 놓은 지도 벌써 오래다. 흘끗 바라본 손목시계의 초침은 어느새 두 시간이 지났음을 알고 있었다. 이영은 자기가 충분히 기다려왔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장난으로 한 소린가? 사실 그냥 해본 말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 앉아 있는 제가 몹시도 멍청하게 느껴졌다.

할 말 없어?

가시 돌친 이영의 말에 지호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왜 먼저 얘기 안 해? 꿈 얘기.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거잖아. 미적미적하게 식은 커피의 수면 위에 지호의 고민하는 얼굴이 일렁거렸다. 지호는 한참이나 입술을 우물거리며 말을 골랐다. 잠자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영은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 말 없으면 갈게.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해.

잠깐, 알았어, 말할게. 그러니까……

네 꿈에 우리 언니가 나온 거 같아.

장난치지 마.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영은 성큼성큼 걸어 나와 카페 출입문을 열어젖혔다. 황급히 뒤따라 나온 지호가 이영의 팔을 붙잡았다.

……장난 같아? 이영의 기분이 더욱더 아래로 처박혔다. 지호의 손을 사납게 뿌리쳤다.

힘없이 현관문이 열렸다. 신발을 벗는 손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거실에 나와 있던 이영의 부모가 의아하게 이영을 바라보았다. 나갔었니? 이영은 그렇다 대충 대답하고는 곧장 방

으로 들어갔다. 이영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마주 보고는 별일이라며 어깨를 으쓱였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곤 제 블로그로 들어가 스크롤을 내려, 2년 동안 백 개가 조금 넘게 쌓인 글 중, 열두 번째 게시물을 찾았다. 갈색 원피스의 여자. 커다란 가방. 야속하게도 그 여자는 제 게시물 속에 완벽히 묘사되어 있었다. 드물게 평범했던 꿈이었던지라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이영의 기억 속에서 새로운 인물 하나가 떠올랐다. 그녀와 다정하게 웃으며 나란히 걷던 남자. 그리고 그녀와 그는 어디론가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날 이영의 꿈은 그제 다였다. 크게 숨을 들이마신다. 보일러로 데워진 찬 공기가 폐부 가득 차올랐다. 도망치고 싶었다. 과부하가 온 듯했다.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다.

할머니. 나요. 무서운 꿈을 꿉어요. 어린 이영이 칭얼거릴 때마다 이영을 안아 달래준 사람은 외할머니였다. 우리 예쁜 손녀가 악몽을 꾸었구나— 하고 다정히 얼러주었던 할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어린 손녀가 종알거리는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아저씨가 내 목을 눌렀어요. 아니 내 목이 아닌가? 누구 목을 꼭 졸랐어요. 그녀는 손녀의 손을 틀어잡고 병원을 찾았다.

어느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없다는 메아리 같은 내용만 반복되자 이영은 어느새 용하다는 무당집 앞에서 있게 됐다. 붉은 화장을 뒤집어쓴 무당 아줌마는 어린 이영을 가리키며 혀를 찼다. 불쌍하기도 하지. 팔자야 팔자. 어쩔 수가 없다고. 그

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우리랑 비슷한데 다르구먼. 일단 무당 팔자는 아니니 안심하셔. 사는 게 평탄하지는 않겠다만…….

옆에서 제 머리통을 쓰다듬는 투박한 손에 이영이 고개를 들었다. 괜찮다. 괜찮대. 그냥, 영이가 몸이 약해서 그래. 그래서 안 좋은 꿈을 꾸는 것뿐이다. 크면 괜찮아질 거다. 그러나 열여덟 살이나 먹은 이영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금도 꿈을 꾀다.

영아, 영아. 일어나봐.

이영의 엄마가 이영을 흔들며 깨웠다. 전화 계속 온다. 급한 일 같은데. 받아봐. 이영은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간만에 할머니 꿈을 꾸고 있었는데 방해받아 불쾌했다. 이영의 인간관계는 극도로 좁았기에 전화의 수신인은 보나 마나 지호였다. 급한 거 아니에요. 이영은 휴대폰 전원을 껐다. 조금 더 자고 싶었다.

반짝 눈이 떠졌다. 찌뿌둥한 기분에 기지개를 켜고 나서야 머리맡에 놓인 차갑게 식은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전원을 켜자 지호의 부재중이 알림창 상단을 뒤덮고 있었다. [연락해줘. 기다릴게.] 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확인한 이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짜일 리 없다. 휴대폰 화면을 끈 채 저 멀리 떨어트려 놓았다.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든 이영은 머릿속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보고 지금 저걸 믿으란 말인가? 십수 년이 넘도록 저를 괴롭혀 온 악몽에 자기 언니가 나왔단다. 이영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꿀던 꿈의 이미지가 한 장씩 스쳐나갔

다. 피 칠갑을 한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누군가, 옥상 난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태로운 풍경, 중환자실에 울려 퍼지는 나지막한 사망 선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 사실이라기엔 이영의 꿈은 너무도 무자비했다.

네 꿈, 아무래도 진짜야.

그게 진짜면. 정말로 진짜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동안 발버둥 쳐왔던 높이 사실은 누군가의 간절한 숨이었다는 것을. 이제 와 알아 도대체 어찌란 말인가. 이런 이상한 꿈을 꾸는 나는 과연 뭐지?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다. 이영을 간절하게 들여다보던 흔들리는 고동색 눈동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바들바들 떨리는 낭랑한 지호의 목소리가 다시금 이영의 귓가에 울린다.

당황스러운 거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네 꿈. 여기 열두 번째로 올린 거 말이야. 갈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얘기. 그거…… 아무래도 우리 언니 이야기 같아. 딱 우리 언니 생김새고, 우리 언니가 같은 옷을 입었어. 실종된 날에.

지호가 쥐여준 사진에는 커다란 가방을 든 갈색 원피스의 젊은 여자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이영은 그동안의 제 꿈을 떠올렸다. 이 여자도, 죽었을까? 그것도 아님. 어딘가에 불행하게나마 살아있을까?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 설령 지호의 말이 맞다 한들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드디어 지독한 악몽의 실마리를 찾아낸 줄 알았는데 명칭한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꼴이었다. 이영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장난 같아? 그제 장난이 아니면, 도대

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 단조로운 비명과 함께 이영의 손톱 틈으로 핏물이 번졌다. 저도 모르게 씹어대고 있던 손톱이 어느새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이영은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서랍 어딘가에 있을 밴드를 찾아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다. 밴드는 안 보이고 웬 익숙한 노트 하나가 딸려나왔다. 이년 전의 다이어리. 어느새 피가 나는 것도 잊고 멍하게 그것을 펼쳐보았다. 그 속에는 그때의 일정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오월 십삼일 국어 수행, 팔월 오일 여름방학…… 그리고 구월 이십칠일. 그동안 수백 번이 넘도록 들여다본 바로 그날 기록의 게시일. 이영의 손끝이 페이지를 훑었다. 꼴깍. 마른 침을 삼켰다. 이영은 아주 느리게 휴대폰을 들어, 수신기록을 열었다.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렸다.

어보세요? 몇 번의 수신음 끝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지호. 나 뭔가 찾은 것 같아.

이영의 손가락에 맺혀있던 피가 기어코 다이어리 위로 튕, 떨어졌다. 펼쳐진 페이지 위에는 이지연, 그리고 김승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어지러운 낙서가 얽혀있었다.

지호는 이영의 전화를 받자마자 이영을 찾아왔다. 네 언니 이름이 정말로 내 다이어리에 쓰여 있었어. 이거 봐. 맞지. 횡설수설하는 이영의 말을 어떻게 잘 알아듣고는 지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거봐. 진짜일 것 같다고 했잖아. 우리 언

니 찾을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줘, 응?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이영은 울먹이는 지호를 거절할 만큼 나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잔잔한 호수 건너, 작달막한 집들이 뺨뺨하게 들어서 있는 작은 동네. 엉망진창인 이영의 낙서였지만 그린 사람 눈에는 제대로 보여 다행이었다. 이영과 지호는 21세기 청소년들답게 구글 지도를 들락거리며 한국에 있는 45개 호수의 로드뷰를 털었다. 고양에서 고속버스로 이동할 만큼 거리가 있는, 적어도 두 지역 건너는 떨어져 있는 곳, 단숨에 몇 가지 지역이 추려졌다.

이영과 지호는 지역별로 하나씩, 버스표 예매했다. 하나하나 돌아볼 생각이었다. 그 동네를 돌아보며 ‘이지연’과 ‘김승혁’의 이름을 물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는가. 처음 만났을 때 유복한 집안이라며 주절거린 것이 영 허풍은 아니었는지 지호가 풋값을 계산하겠다고 나섰다. 이영이 사양하든 말든 지호는 막무가내였다. 미성년자인지라 적어도 당일에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으므로 하루에 한 지역이 고작이었다. 금토일. 삼일간의 당일치기 일정이 시작됐다. 둘은 잘 떠지지도 않는 눈을 끔뻑거리며 새벽 버스에 올라탔다.

첫 번째 지역, 화성에서는 거대한 댐으로 막힌 저수지가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 주위는 온통 울창한 풀숲과 도로뿐. 인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여긴 아니야. 이영이 허탈하게 고개를 저었다. 두 번째 안성은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어딜 가나 낚시꾼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게다가 관광명

소인지 옆에는 구멍가게 같은 음식점들이 연신 트로트를 시끄럽게 틀어대고 있었다. 지호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허망한 마음을 뒤로한 채 마지막 포천으로 가는 날이 밝았다. 그래, 쉽게 찾아질 리가 없었다. 오, 추워. 얼음장 같은 자리에 앉자마자 지호는 히터 날개를 제 쪽으로 돌렸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차가운 몸을 녹였다. 지호는 유난히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었다. 자기는 너무도 멀쩡하여 무안해진 이영이 괜히 코를 훌쩍였다.

고요한 차체에 덜컥거리는 소음만이 울려 퍼지기를 한참,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지호의 고개가 이영의 어깨로 툭 떨어졌다. 평소라면 질색하며 떨어트렸겠지만, 그날따라 이영은 지호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따끈한 바람이 이영의 눈꺼풀도 살살 끌어내리고 있었다.

여자는 첫 진술 때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리고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여자가 있는 유치장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여자를 한번씩 찌르고 갔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탄식을, 누군가는 무심한 비난을, 누군가는 가련한 동정을 철창 사이로 던졌으나 어쨌든 여자는 이미 그들에 의해 난도질되었다.

여자 앞에 선 남자는 못마땅한 눈빛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재킷 칼라에 달린 금색 번호사 배지가 전등 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그는 스트레스를 넘치게 받은 사람처럼 제 미간 사이를 꼭꼭 눌렀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앞에 앉은 여자는 너무도 조용해서. 그는 어쩌면 그때 죽은 건 그녀일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했다.

저기 그래도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하거든요. 아무리 국선이 라지만, 일단은 제 사건이기도 해서. 텅 빈 시멘트 방에 변호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는 다시 한번 한숨을 삼켰다. 그 후로도 몇 번이고 비슷한 내용의 다른 질문을 계속하던 변호사는 여전히 굳게 다물어진 여자의 입을 바라보았다. 이내 포기한 듯 질문을 멈췄다. 체념한 그는 다른 내용의 마지막 질문을 했다. 그럼 가족한테라도 연락하시겠어요. 이번에 도 여자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예의 그 사무적인 태도로 설명을 늘어놓았다. 네,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로 인정된 건 한 건도 없으니…… 그래도 감형은 좀 되셨네요. 검사는 17년 형 때렸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의뢰인님 사연 아는데. 그나마 마을 주민분들 증언이랑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밀어붙여서……12년까지 내렸습니다. 자백도 하셨고.

……애는요? 자백 이후 처음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건조한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변호사는 잠시 멈칫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아, 준수요? 그동안은 주인집 할머니님이 맡아 주셨다는데, 아무래도 보육원으로 갈 겁니다. 준서가 20개월이죠? 개월 수가 지나서 데리고 들어가진 못하세요. 여자는 알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금 입을 닫았다.

여자는 조용히 제게 내밀어진 푸른 죄수복을 매만졌다. 뺏뺏한 상의에 머리를 옥여넣었다. 그녀 주변에는 그녀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죄수들이 흘끔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다들 그녀처럼 장기복역수인 듯했다. 이십 대 초반의 죄수, 배가 부른 죄수, 푸근한 인상의 죄수, 주름진 할머니 죄수…… 각기 다른 여러 쌍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유치장에서 이미 받을만큼 받았던 눈길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길 잃은 시선이 바닥 장판의 나무무늬 위를 떠돈다. 그저 또 입을 닫았다.

허억. 헉. 싫어, 하지 마. 아니야. 어둑한 새벽 식은땀으로 폭 젖은 여자가 발버둥 쳤다. 절박한 움직임에 덮고 있는 그녀가 이불이 마구 들썩거리고 옆에 누워있던 다른 죄수들 또한 부스스하게 눈을 떴다. 깊이 잠든 여자는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었다. 화들짝 놀란 중년 죄수 하나가 그녀를 흔들며 깨웠다.

일어나요. 일어나! 번뜩 눈을 뜬 여자는 허망한 눈으로 어둠 속을 살폈다. 그리고는 축 늘어졌다. 그제야 그녀의 팔을 결박하고 있던 다른 죄수들의 손에 힘이 풀렸다.

아니, 대체 어떤 꿈을 꿧기에 그래요? 애 떨어지는 줄 알았네. 평소엔 죽은 듯 주무시던 분이. 배를 감싸 안은 죄수가 통명스럽게 물었다. 고요해진 분위기에 옆의 다른 죄수들이 그녀에게 눈빛으로 타박을 주었다. 여자는 가만히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다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내가 죽인 남편이, 내 목을 조르는 꿈이요. 여자가 이 방에 들어와서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가, 남편을 죽였거든요. 그래서요. 여자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한없이 가라앉았다.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에 이영이 눈을 떴다. 일어났어? 가자. 지호가 산뜻하게 말을 걸어왔다. 둘은 얼마 안 되는 짐을 부랴 부랴 챙겨 버스에서 일어났다. 포천에 도착하자마자 구글 지도로 미리 보아두었던 풍경을 찾아 헤맸다. 터미널에서 내려 마을버스로 또 한참을 들어가고, 저질 체력인 이영의 입에서 곡소리가 새어 나올 때쯤, 둘의 앞에 커다란 호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조그만 마을. 읍내에는 이따금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시작이 좋았다.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노인정이 보였다. 수소문에는 역시 사람 많은 곳이 제격이었다. 다행히 투박한 벽돌로 지어진 마을회관 앞에는 노인 몇 명이 모여 있었다. 할머니. 혹시 이 동네에서 이지연이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승혁은요? 여자 나이는 이제 서른 하나 먹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호의 가방에서 나온 사진을 들여다보며 할머니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 뭐라고? 천천히, 다시 말해봐라.

지연이요. 이 지연.

야가 지연이여? 잘 보이지도 않는다야.

……개는 왜 찾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말했다.

아세요? 이영과 지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아 애 가 아니여? 다른 노인들이 뭐라 말을 엿으려 하자 백발노인이 그들을 서둘러 노인정 안으로 들여보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매서운 눈초리가 다시 이영과 지호에게 향했다.

왜 찾냐고.

아, 저희 언니예요. 이지연 씨가. 육 년 전에 저희 언니가 사라져서요. 언니 찾는 중이에요. 얼떨떨하게 대답하던 중 번뜩 생각난 듯 질문을 쏟아냈다. 아, 혹시 김승혁이라는 사람도 아세요? 어디 사는 지는요? 백발노인의 주름진 눈가가 부르르 떨렸다.

……그그 언니 맞고만. 다했네. 지금은 여기 안 살어.

맥이 쪽 빠졌다. 코앞까지 온 것 같은데. 이영은 저도 모르게 탄식을 뱉으려다 할머니의 입술이 다시 달짝이는 것을 보고 잠깐 숨을 멈췄다. 살던 집이라도 볼 테면 따라와라. 지연이 개가 우리 집에 세 들어 살았었다.

노인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동안 지호는 이런저런 말을 붙였다. 할머니, 저 언니랑 진짜 닮았어요? 처음 들어봐요. 노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지호의 말을 무시했다. 어느새 낡은 문 앞에 다다랐다. 할머니 손에 쥐인 열쇠가 철컹 소리를 내며 문을 열자, 그들은 먼지가 폴폴 나는 공간으로 성큼 들어섰다. 겨우 방 하나에 작은 주방, 화장실이 다였다. 우리 언니가 진짜로 여기 살았다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는 벽을 매만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지연이 나가고 아무것도 손 안 댔다. 벌써 2년이 넘었어.

그 말이 사실인지 조그만 화장대며 옷장 같은 가구가 남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둘은 진심으로 노인에게 감사를 전했다. 백발노인은 잠시 혀를 꼰꼰 차다가 입을 열었다.

지연이한테 정말로 아무 연락 못 받은 게야?

그렇다 지호가 대답하자 노인은 어떤 말을 할 듯 입을 벌근거리다가 이내 다시 입을 꼭 다물고는, 열쇠를 던지듯 이영에게 쥐여주고 돌아섰다.

둘러보고. 열쇠는 돌아갈 때 문 앞 화분 아래 두고 가라. 에휴. 망할 계집애. 독한 것. 나지막한 한탄이 따라붙었다.

우리가 저런 말 들을 정도로 버릇없었나?

글쎄. 이지호 네가 원래 좀 버릇이 없긴 한데……

죽는다. 진짜.

노인이 사라진 후, 티격태격하던 둘은 작은 방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혹시라도 다른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지연이 사용했을 법한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휴대폰 불빛까지 비춰가며 옷장 속을 뒤지고, 부엌 찬장을 뒤지고……했지만 작은 쓰레기 몇 개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기진맥진한 둘은 먼지투성이 바닥 위에 고꾸라졌다.

이영은 느리게 옆에 누운 지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호는 좀 전부터 말이 급격히 줄었다. 아무리 지호가 속이 없어도 많이 허무할 테였다. 그도 그럴 게 이곳은 생각보다 더……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쿡쿡한 곰팡내가 났으며 곳곳이 부서질 듯했다. 아마 지호는 지금쯤 언니를 연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 어찌 살았느냐 원망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벽을 보고 누운 지호의 등이 괜히 안쓰러워 보였다. 지호의 심란한 마음을 건드릴 생각이 없는 이영이 이만 몸을 일으켰다. 자리라도 피해줄 요량이었다.

영아. 저저 봐. 저저 뭐냐.

지호의 손가락이 한쪽 벽을 가리켰다. 벽과 바닥 사이 작은 틈새에 흰 귀퉁이가 비죽 튀어나와 있었다. 지호가 천천히 그것을 잡아당기자, 스르륵. 네모반듯한 사진 한 장이 딸려나왔다. 사진 속에는 조그만 아기를 끌어안은 지연, 그러니까 지호의 기억 속에 있는 젊은 지연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남자가 있었다. 단란한 가족사진이었다. 아. 언니. 지호는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행복할 거면 차라리 당당히 행복할 것이지. 도대체 왜 떠났는가. 대체 왜 아직까지 만나러 오지 않았는가. 이영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선명히 웃고 있는 지연과 가늘게 떨리는 지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느새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한 지호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이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을까. 지호의 눈은 불어터져 버렸다. 뜨끈하게 달아오른 눈두덩이를 누르며 남은 한 손에는 사진을 꼭 쥐고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한 둘은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지금은 오후 아홉 시고, 돌아가는 고속버스는 열시 삼십 분에 출발하는데, 마을버스 막차가 여덟 시 사십 분에 떠났다. 설상가상으로 택시조차 잡히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일에 둘은 어쩔 수 없이 지연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미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의 한밤, 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었으므로 오늘 하루 그곳에 묵기로 했다.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며 전화를 돌렸다. 포천에 왔다는 것은 당연히 비밀이었다. 이영이 여태껏 독서실에 있는 줄 알았던 부모는 갑작스러운 딸의 외박에 당혹스러워했다. 지호가 자기가 이영의 절친한 친구라며 열심히 이영이 자기 집에

서 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어필로 겨우 넘어갈 수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지호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지호의 부모님 부탁으로 지호를 들여다봐 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께도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바꾼 이영의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네! 저 지호 친군데요! 오늘 지호 저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요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았다. 지금 여기에 있다며 저번에 이영의 집에서 지호가 반강제로 함께 찍은 셀카까지 전송하고 나서야 둘은 한시름을 놓았다.

한겨울은 지나고, 꽃샘추위는 아직인 시기라 그런지 입 돌아갈 정도로 춥진 않았다. 룡패딩을 침낭처럼 뒤집어쓰고 딱딱한 바닥에 누웠다. 이제 막 아홉시를 넘어가는 시간에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둘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 옆에 있으면서 어쩐지 저도 말이 많아진 것 같다고 이영은 생각했다. 그렇게 찾아 헤맸던 지연의 공간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이상했다.

영아.

우리 언니 진짜 어디 있지?

……딱 한 번만 다시 보고 싶은데.

욕 좀 하게. 완전 나쁜 년이라고, 욕할 거야.

지호의 목소리가 웅얼거리게 들렸다. 아침부터 움직여서 그런가.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자꾸만 눈이 감겼다. 꿈뻑이는 검은 시야 속에 아까 봤던 사진 속 여자가 떠올랐다.

옛된 얼굴의 여자가 크게 소리친다. 싫다고요. 싫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요. 저 남자친구 있다니까요. 개랑 결혼하고 싶어요.

여자의 앞에선 부모가 짐짓 엄한 표정을 했다. 말 잘 듣던 애가 왜 그래.

여자는 실성한 듯 웃으며 맞받아쳤다. 말 잘 들었다고? 그럴 리가.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비위맞춰준 거야. 내가 큰 거 바래? 내 맘대로 결혼하겠다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여자의 뺨이 거칠게 돌아갔다. 정신 차려라. 너만 생각하지 마. 여자는 멍하니 고개가 돌아간 채 허공을 응시했다. 여자의 뺨을 후려친 중년 남성은 이내 다정하게 속살거렸다. 너를 위한 건데 어찌 그러니. 그 작자랑 결혼해서 어디에 쓰려고! 나중엔 다 부모에게 감사할 게다. 돌아간 뺨 아래로 눈물이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전화기 너머로 사랑스러운 연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자는 물기젖은 목소리로 보고 싶다 말했다. 전화기 너머의 그는 한달음에 달려와 여자를 품에 안았다. 달아나고 싶었다. 가능한 먼 곳으로.

챙이 큰 모자를 눌러 쓴 채 투명한 물가에 한없이 시선을 빼앗긴 뒷모습이 보였다. 갈색 치맛자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돈다. 승혁아! 화사한 미소가 걸렸다. 승혁, 이라 불린 남자는 웃으며 여자를 끌어안았다. 마주 닿은 코 끝이 딱딱하고 맞잡은 손은 끊어지지 않을 것같은 지독한 애정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그녀는……지연이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이영과 지호가 몇 시간 전까지 서 있었던 호수 앞이었다. 요동치는 물결에 빛이 산산이 부서졌다.

지연은 작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조금 전까지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남자의 끔찍한 고함이 아기 울음소리를 갈랐다. 광분한 그가 던져대는 것에 파묻혀갔다. 등이며 팔다리가 시큰거릴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옛날식 철문 앞에 선 지연이 벨을 눌렀다. 얇은 겂옷을 여미며 인터폰 화답을 기다리고 있자 끼익하는 쇠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 준서 엄마 왔냐. 앉았다 가라. 머리가 희끗한 노인 하나가 여자를 반갑게 맞으며 차를 권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대?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믹스커피를 훌쩍거린 지연이 말을 잇는다. 아 저희 온수가 잘 안 나오네요. 보일러 손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수리공 불러봐야겠구나. 알았다.

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난 지연의 손목이 온통 푸른 자국으로 뒤덮여있었다. 노인은 지연 모르게 혀를 한번 차고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다과를 더 권했다. 가는 길에는 억지로 굴을 한 봉지 쥐여주기도 했다. 창문 너머로 돌아가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고 노인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래도 살아야지 어찌겠어. 박복하구먼. 노인은 무언가에 얽힌 듯 갑갑한 가슴을 두드렸다. 의미 없이 켜놓은 티브이 속에서는 단정한 앵커가 바쁘게 입을 놀리고 있었다. ……방관이라는 것은 피해자를 사지로 내모는…… 노인은 어쩐지 멍한 눈으로 푸른 화면을 응

시했다.

노란 가방을 멘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신나게 발을 구르고 있었다. 어린이집 가니까 좋아? 말도 다 못 댄 아이는 도통 알아듣지 못할 웅얼이를 종알거리며 연신 까르르 웃어댔다. 이제야 보내줘서 미안. 여자도 마주 웃으며 아이의 엉덩이를 도닥거렸다. 어느새 선생님 품으로 옮겨진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며 울상을 지었다가도, 다정한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금세 방실방실 웃어댔다. 여자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어제 도술에 질어 들어온 그가 곤히 잠들어 있을 집으로. 그는 한번 날뛰고 나면 죽은 것처럼 기절 잠이 들곤 했다. 여자는 무방비한 그를 떠올리며 긴 팔 아래 생김지 얼마 되지 않은 멍을 매만졌다. 아이의 인형으로 몇 번이고 연습해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낡은 넥타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지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긴 침묵이 감방 아래로 내려앉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지연의 어깨 위로 거친 손이 내밀어졌다. 푸른 소매 아래의 각기 다른 손들은 천천히 그녀를 어루만졌다.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나는요,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그 인간이 날 강간하려 했거든요. 또 다른 누군가가 입을 연다. 나는 사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을 죽였단다. 내 사십 년은 정말로 끔찍했지. 저는요…… 하나둘 제 이야기를 꺼냈다. 그곳에 사연 없는 여자는 없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특별하지 않았다. 지연은 비로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앞서 꿔던 꿈들이 퍼즐처럼 이어졌다. 옆에 누운 지호를 흔들어 깨웠다. 야, 일어나. 빨리.

이영의 입을 통해 나오는 지연의 이야기를 들은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는 이영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거짓말이지? 지호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다. 그래 애초에 꿈이 어떻게 진짜겠어. 지금까지 우리 뒤에 씌었었나 봐. 이영의 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호였다. 이영은 그냥 지호의 희게 질린 손을 잡았다. ……영아. 진짜야? 그럴 리가 없잖아. 바르르 떨리는 목소리에서 짙은 습기가 베어 나왔다.

이른 아침부터 울리는 초인종에 백발노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열었다.

거 뉘쇼! 아침 댓바람부터.

할머니.

뭐야, 느들 왜 안 갔어.

둘을 보고 깜짝 놀란 백발노인이 거세게 호통쳤다. 여기서 잔거여? 으이?

할머니, 저희 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아시잖아요.

젖은 지호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파고들었다. 알려주세요.

백발노인의 눈이 가라앉았다. 노인은 잠시간 지호를 가만히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덜컹대며 닫히는 문 앞에 선 지호가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다. 이영도 서러움이 비죽비죽 새어 나왔다.

할머니, 제발요. 네? 할머니……

무거운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외투를 갖춰 입은 백발노인은 머플러를 여미며 아이들에게 손짓했다. 따라오나라. 못 할 짓인 줄 알았지. 내 또 후회하긴 싫어.

노인과 두 소녀는 지긋지긋한 고속버스에 다시 몸을 실었다. 청주로 가는 버스는 무척이나 덜컹거렸다. 교도소에 도착해서는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접견 신청서를 작성했다. 백발노인은 밖에 있겠노라 고집을 부려 같이 들어가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곳엔 정말 지연이 있었고, 서류는 받아 들여졌다. 지호는 푸른 죄수복을 입은 언니를 만났다.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꺼운 철문을 열고 저벽저벽 걸어 나온 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제 동생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지호는 속이 뒤집어지는듯했다. 차라리 돌아오지……

지연은 제 기억보다 훨씬 커버린 동생을 앞에 두고 눈을 내리깔았다. 부끄러워 사과조차 하지 못했다. 딱 깨물렸던 지호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다. 진짜로. 못돼먹었어. 말을 왜 안 하냐고. 짐승이 으르렁거리듯 외친다. 왜! 바람바람 소리치는 풀이 처절했다. 지연은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릎 위에 단정하게 올린 두 주먹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호는 언니의 작아진 어깨를 보고, 제 분을 못 이겨 뛰쳐나갔다.

야, 너 미쳤어? 옆에 가만히 서 두 자매를 지켜보면 이영이 황급히 지호를 따라나섰다. 지연의 작은 목소리가 이영의 뒤에 따라붙는다.

……잘, 달려줘.

아직 이영은 꿈속의 지연이 잊히지 않았다. 이영은 고개를 뒤흔 돌리며 쏘아붙였다. 그건 언니가 하세요. 두 눈에 눈물이 그렇게렁하게 맺힌 꼴이었다.

우당탕 면회실 문을 열자 교도관들이 의아한 눈으로 돌을 쳐다보았다. 바깥까지 뛰어나간 돌에 당황한 백발노인이 우선 따라 나가려는 교도관들을 말했다.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냐. 제발.

혁, 허억. 너, 이대로 가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러지 마.

힘겹게 말하는 이영의 가슴팍이 심 없이 오르내렸다. 지호가 멈춰 서 천천히 뒤돌았다. 붉은 눈물 줄기가 얼굴을 영망으로 적시고 있었다. 그럼 어떡해? 우리 언니 어떡하냐고. 이영은 아이처럼 꺾꺾 울어 재끼는 지호의 어깨를 꼭 틀어 안았다.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들어갔다.

한바탕 소란 후에 면회실로 돌아가자, 이미 면회시간이 다 되어 지연은 돌아가 있었다. 주인 없이 텅 빈 의자를 가만히 노려보던 지호는 새 면회 날짜를 신청했다. 일단은 집에 한 번 돌아야 했으므로 이를 뒤로 작성했다. 이영은 한발자국 뒤에 서서, 서류를 작성하는 지호의 곧은 뒷모습을 가만히 눈에 새겼다.

두 번째 면회, 다행히 지연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호는 십분 남짓 하는 면회시간 내내 가만히 지연을 바라보기만 했다. 온갖 감정이 함축된 눈, 지연은 쓰게 미소 지으며 그 시선을 받아들였다. 순간 같던 시간이 흐르고 교도관이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린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난 지호는 스치듯 입을 열었다. 언니를 이해할 순 없어. 근데 외면하고 싶진 않아.

지연의 출소일은 9년이 조금 넘게 남았다. 지호는 부모에게 지연의 일을 알리고 싶어 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내저었다. 내가, 말해야 하는 일이야. 지호는 제 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신 몇 번이고 편지를 쓰고, 언니를 찾아갔다. 지호의 시시콜콜한 편지에는 지연의 정갈한 답장이 날아왔다. 만나서 얹긋은 말을 하면 미묘한 표정으로 웃어주었다.

지호는 조카를 찾으러 홀로 포천을 다시 방문했다. 백발 할머니를 끌어안고 감사하다며 한참을 울었다고 이영에게 전해 주었다. 할머니는 지연이 재판받을 동안 준서를 데리고 있었지만, 나이가 너무 들어 근처 믿을 수 있는 보육원에 맡겼다고 했다. 마음만 같아선 준서를 고양이로 아예 데리고 오고 싶었으나 일단은 저도 학생이었으므로 언니가 나올 때까지 보육원에 두기로 했다. 대신 매주 방문하여 봉사자인 척, 준서를 지켜봤다.

알았어. 언니? 그러니까 빨리 나오란 말이야. 어느새 연한 분홍색의 모범수 죄수복을 입은 지연의 앞에 앉은 지호가 턱살 좋게 언니를 뒹달했다. 지호의 옆 의자에는 백발노인이 앉아 있었다. 지호는 품 안에서 인쇄된 준서의 사진을 꺼냈다. 다행히 다섯 살 먹은 제 조카는 밝게 자라서, 어느새 친해진 이모랑 익살스러운 셀카를 찍는 걸 좋아했다. 까르륵 웃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릴듯한 사진을 쥐고 지연의 표정이 밝게 일그러졌

다. 아. 언니. 올든지 웃든지 하나만 해!

내버려 둬라. 저건 감동이어.

앗, 그래요?

[……저번에 그랬다니까,]

[할머니도 언니도 즐거워 보였어.]

그것 외에도 준서를 열심히 놀아주고 있는 사진이 수두룩했으나 어째 지호가 더 신난 그것으로 보였다. 그 뒤로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다.

[영아 다음 주말에 할 일 없지.]

[너 친구 없는 거 다 아니니까]

[괜히 툭기지 마.]

[그때 만나자. 나 다음 달에 출국해.]

[그럼 한 3개월 후에야 볼 수 있을걸?]

[잘 생각해라. 이거 귀한 기회다.]

[아니거든?] 친구가 없긴 누가 없어. 발끈해서 후다닥 답장을 보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교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후다닥 휴대폰 화면을 끄고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다.

다들 반갑다. 나는 너희 담임인… 선생님의 형식적인 자기 소개를 뚫고 잠생각이 뻘뻘 새어 나왔다. 오늘 꿈이 떠올랐다. 놀이공원에 간 아이였다. 요즘 준서 때문에 애를 많이 봐서 그런가. 이게 제가 꾸던 그 꿈들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개꿈인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블로그에는 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갔다. 비록 전만큼 자주 꾸진 않지만 꿈은 잊을 만하면 간

간이 이영을 찾아오곤 했다. 괴로운 꿈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 제 꿈은 아마도 누군가의 기억의 파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들은 제발 저 좀 알아봐 달라며 이영에게로 온 것이 아니었을까. 이미 한번 지호라는 인연을 만난 적이 있으니 아마 다른 꿈의 주인들도 인연이 된다면 저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또 열심히 구르면 되지. 선생님의 낭랑한 목소리가 출석을 불렀다. …1번 권이영. 이영이 화들짝 놀라 잠생각에서 벗어났다.

이영아?

네. 이번엔 가볍게 손을 들며 대답했다. 따끈한 햇살이 이영의 자리를 비쳤다.



## 인터뷰어: 화요일의 작가들

고목  
홍옥  
아린  
루나

## 인터뷰어: 목요일의 작가들

### 구와 | 특별하지 않은

가상 인물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과몰입 글쓴이.  
꿈속에서라면 세상에 다시없을 로맨스에서도,  
정의 빼면 시체인 히어로물에서도,  
심지어 호러물에서도 주인공이 되고야 마는 욕심쟁이.

### 도담 | 가주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  
지금의 세상보다 여성의 인권이 더 보장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  
책을 읽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살짝 느리지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리엔 | FROM DREAM

평범한 일상이 글이 되는 사람.  
엄청나게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어느 것이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 비비 | 메이드인 차이나

음악으로 이야기를 그리는 작가.  
다채로운 물감들로 이야기를 그려나간다.  
일상은 해피 엔딩을, 이야기는 새드 엔딩을 추구하는 편.

**고목**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구와** 안녕하세요. 100에서 1 모자란 99를 좋아하는 양(yang) 씨 작가 9Y입니다. <특별하지 않은>을 썼습니다.

**비비**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작가 비비입니다.

**도담** 고등학생 작가 도담입니다. <가주어>를 썼습니다.

**리엔** 안녕하세요. <FROM DREAM>의 작가 리엔이라고 합니다.

**홍옥** 공통 주제가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의적인 단어인 만큼 이 주제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구와** 꿈! 중의적인 단어죠. 한국에서 살아가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학교에서 꿈을 찾아라, 진로를 결정해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익숙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동시에 너무 멀어 보여서 무섭기도 하고요. 게다가 전 꿈을 엄청 자주 꾸는 편이라 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비비** 음…… 아무래도 중의적인 단어이다 보니 최대한 두 꿈 다 살려보고 싶었어요. 또 굉장히 광범

위한 주제인 만큼 제가 소재를 잡기에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구요. 더 솔직해지자면, 꿈이란 주제가 제일 쉬워 보였어요.(웃음)

**도담**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꿈을 저만의 의미로 해석하여 소설을 쓴다는 것이 설렸어요. 그래서인지 꿈의 의미를 잘 해석해보고 싶었어요.

**리엔** 중의적인 단어다 보니 좀 힘들었고,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써야 할지 고민도 되었어요.

**아린** 소설의 소재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구와** 다들…… 로망 같은 거 있지 않으셨나요? 그 왜 글을 써보라고 하면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감성 충만한 소재 있잖아요. 사랑, 죽음, 이별 이런 거. 제겐 꿈이 그랬습니다.

**비비** 아쉽게도……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워낙 생각이 안 나서 정말 아무 단어나 막 던지고 봤는데, 그 과정에서 소재를 찾지 않았나 싶어요.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도담** 소설을 쓰려고 대충 구상에 들어갔는데 그때 성장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통 주제도 꿈이어서 성장 소설을 쓰기 딱 좋겠다는 느

김을 받았죠. 자연스럽게 소설의 소재를 찾게 된 것 같아요.

**리엔** 꿈이라는 공통 주제를 정하고 나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보다는 잠잘 때 꾸는 꿈이 먼저 생각났어요. 어쩌다 보니 이 소재로 제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루나** 꿈에 사로잡혀 있거나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설정 때문인지 인물들이 되게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인물의 모델이 된 사람이 있나요?

**구와** 작가의 말에도 남겼지만, 우선 제가 도망치는 걸 끔찍이 싫어합니다. 머리 아프니까, 귀찮으니까 다 덮어버리고 외면하는 작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렇다 보니 아마 인물에게 영향이 간 것 같습니다.

**비버** 딱히 모델을 잡고 인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들고 보니 제 이상이라든지 가치관 같은 게 담긴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바로바로 실현해 나간다는지…… 도아 같은 경우 결단력과 추진력이 좋은 편인데, 저는 결정 느낌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약간의 소망이 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도하와 연준 모두 키가 크다고 설정했는데, 그런 외적인 부분에도 제가 닮고 싶어 하는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도담** 아마 제가 아닐까요? 인물의 성격과 모습을 제게서 많이 따오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성격들이 자연스럽게 인물에게 투영된 것 같아요.

**리엔** 인물의 모델이 된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내용은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무의식중에 제가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루나** 저희도 그렇지만 작가님들 역시 초고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스토리, 인물, 배경, 작가 본인에 이르기까지 초고를 쓸 당시와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구와** 정말 많이 달라졌죠. 초고를 얼마 전에 다시 읽어봤는데 와, 못 봐주겠더라고요……. 특히 이영과 지호의 관계가 제일 그랬죠. 원래 좀 더 둘이 친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찐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분량상의 문제로 많이 들어낸 게 아쉽습니다. 게다가 백발노인이라는 조력자는 퇴고를 거듭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었고요.

**비버** 그쵸. 진짜 많이 변했죠. 크게는 흐름과 장르를 꼽을 수 있겠네요. 초고에서는 서사를 시간순으로 진행했었는데 정말 답이 안 나와서 교차 편집으로 처리했어요. 원래 장르도 우정물이었는데요. 연인 관계인 게 나올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로맨스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초고의 흐름을 중반까지 이어가는 바람에 그때까지 스토리에 살을 거의 붙이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네요. 저 역시도 이렇게 긴 글을 써본 건 처음이라 이제 웬만한 글은 ‘이쯤이야, 뭐’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도담** 초고와 비교하여 많은 것이 변화긴 했어요. 원래 두 주인공만 존재했던 소설에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더 늘었고요. 캐릭터도 전보다 더 밝게 수정되었어요. 처음에 잡았던 캐릭터는 제가 봐도 너무 기분 나쁜 직설적인 캐릭터였거든요.

**리엔** 인물은 초고를 쓸 당시와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초고와 비교했을 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 나오기도 했고, 추가된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홍옥** 작품 구상 단계에서 이걸 무조건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인물 또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퇴고를 거친 뒤에 변경된 부분은 없나요?

**구와** 첫 장면! 겨울 빙속을 헤치며 지호를 만나러 가는 이영의 모습이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처음 떠올린 이미지였어요.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지켜

가고자 이것만큼은 초고와 거의 비슷하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영이 고뇌하는 장면도 그래요. 우다다 생각을 뱉어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꼭 담고 싶었습니다. 아, 지연이 남편을 살해하는 장면에서 금붕어를 비유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물고기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종류 불문하고. 근데 붉은 금붕어만 보면 이상하게 피 한 방울이 어항 속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고요하고 평범한데, 징그럽고 잔인한 느낌이에요.

**비비** 그렇게까지 ‘이건 무조건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아마 결말은 계속 둘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였는지 중간에 수정하긴 했으나 다시 제가 생각했던 결말로 돌려봤고요. 아, 아니다. 배경이요. 배경은 꼭 시골을 하고 싶었어요. 시골이라기보다는 좀 신비한 장소? 남들이 잘 모르지만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무안이 크게 보면 공항으로는 유명하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안으로 설정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도담** 주인공인 연우의 과거 회상을 꼭 넣고 싶었어요. 과거가 있어야지만 이 캐릭터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제일 열심히 쓴 부분이기도 하고, 소설의 내용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부분이거든요.

요. 이 부분은 퇴고하면서도 딱히 바뀐 것은 없지만  
그나마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부모님이 등장했  
다가 아버지만 등장하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리엔** 무조건 넣고 싶었던 장면은 아무것도 없는 공  
간에서 주연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회피  
하고 도망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주연이가 유은이를 친구로 느끼게 되  
죠.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린** 소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요?

**구와** 이영과 지호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마지  
막 장면이요. 평온하고 따뜻해요. 이 소설에서 유일  
하게 따뜻한 장면이에요. 그 부분을 쓸 때만큼은 부  
드럽게 풀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비비** 연준이 도아를 말리며 우는 장면이요. 그때의  
대사들이 전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썼지만요. 이어  
진 도아의 대사도 마찬가지로요. 그 문단 전체가 마  
음에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항으로 떠나는 장  
면도요. 생각해보니 비가 그친 이후로는 다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웃음)

**도담** 제 소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한  
다면…… 연우와 태인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가 사

건을 해결한 후 태인이 연우를 위로해주는 부분이  
요. 그 장면의 문체가 가장 따뜻하고 좋아요. 개인  
적으로 그런 따뜻한 말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리엔** 제가 소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주연  
이 유은을 친구라고 생각하게 된 장면이 가장 마음  
에 들어요.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진정한 친구가 있  
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썼기 때문이지 않음  
까요.

**고목**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작가님이 실제로 꾸셨던 꿈 중  
가장 인상 깊은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기억나는  
꿈이 있으시나요?

**구와** 와, 제 꿈이요? 저 진짜 장르 다양한데. 코미디  
부터 로맨스, 호러까지. 세쌍둥이가 제 친구한테 반  
해서 친구가 <안녕하세요>사연자로 나오고, 제가  
그 진술자(맞나요?)로 나왔던 꿈도 있고, 반 애들이  
갑자기 옛날 프랑스 귀족 옷과 가발로 치장하고 돌  
아다니는 꿈, 막 제가 왕족 아이들이 암살당할 위험  
에 대비하기 위한(?) 아이로 자라서 저랑 같은 처지  
인 친구랑 죽어라 도망치는 꿈도 있어요. 거대한 서  
양식 저택 샹들리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저  
를 미친 듯이 쫓아오던 귀신 꿈을 일주일 연속 꿰던  
것도 기억나고요……. 아이고 너무 많네요. 하여튼  
정말 많아요.

**비비** 저는 꿈을 정말 신기하게 꾀요. 꿰던 꿈이 영 화처럼 정확히 기억나기도 하고, 옛날에 꿰던 꿈을 다시 꾸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부끄럽지만 하나 풀어보자면 공통 꿈이 아닌가 싶어요. 잊을만하면 다시 꾸는 꿈이라 기억하는데 유치원에 갑자기 공룡이 나타나서 선생님들이 방석에 앉아있던 아이들을 그대로 머리 위로 들어 도망 다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면 전쟁이 나서 땅굴을 뚫는데 그 땅속에서 사촌 네를 만난다든가……. 진짜 어디 가서 말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런 이상한 꿈들만 꾀니다.

**도담** 솔직히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아요. 워낙 빨리 잠들기도 하고, 요즘은 잠을 빨리 자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다지 꿈을 꿀 일은 없는데, 꿈을 꾀다면 악몽만 꾸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좀비가 나타난다든가…… 꿈을 꾀다면 무조건 좀비 꿈만 꾀요.

**리엔** 저는 꿈을 꾀도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꿈에 관심이 크게 없기도 하지만요. 꿈을 꾸면 좀 징그러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은 꿈은 징그러운 꿈은 아니지만 제가 거인이 되었던 꿈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엄청나게 커져서 모든 건물을 다 밟고 다녔어요. 한순간에 건물들이 레고가 된 순간이었어요.

**홍옥** 소설을 구상하거나 쓰는 과정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구와** 처음에 콘티 짤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던 이미지와 분위기를 글에 녹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설정 구멍도 너무 많고,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 초고 쓸 때는 설정 구멍 메꾸느라, 되고 때는 어색한 문장 풀어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 다시 보니까 갈아엎고 싶은 문장이 한둘이 아니에요……. (웃음)아쉬운 대로 재수정본(?)은 제 노트북에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비비** 글을 쓰면서도 수업 중반까지 진도가 전혀 안나갔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요. 시간적 배경을 넓게 잡은 바람에 넣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때까지 묘사한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대사만 치느라 분량도 잘 안나오기도 했고요. 행복했던 건 당연히 매주 마감 직후. 그때는 훌가분하면서 뭐 그렇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출 후에 조금씩 고친 것도 있고.(웃음) 그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후 책을 전혀 읽지 않았는데 문득 읽기 시작했다가 묘사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도 문제가

풀린 것 같아서 행복했죠.

**도담** 소설을 완성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드디어 이 기나긴 대장정의 끝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들뜨게 되더라고요. 저만의 소설이라는 수식어가 저를 기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말한다면 생각보다 글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 앞부분을 썼지만 뒷부분의 스토리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리엔** 아무것도 몰랐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막 처음 시작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소설의 틀을 짜고, 내용을 설정하고, 인물을 설정할 때.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또 소설을 완성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고칠 때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 고친 이 소설이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루나** 자신이 쓴 소설이 미워진 순간이 있었나요?

**구와** 저는 맨날이요. 진심으로 미웠습니다.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글을 쓰다 보니 절 점점 조여 오는 부담감과 합평할 때마다 몰아치는 자괴감에……. 물론 다들 부드러운 말로 진행해 주셨지만 제 멘탈이 바스라진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

요.(웃음) 게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와, 전 몰랐는데 제 손이 엄청 느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투머치 토커라 분량은 많은데 도통 이야기 진행이 안 돼요! 딱 울고 싶었죠. 학업도 병행해야 하니 시간은 넉넉지 않고. 늘 마감일에 쫓기듯 썼던 게 그렇게 아쉽네요. 여유롭게 차근차근 다시 써보고 싶어요. 제가 평소애 웹소설 읽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추어 웹소설 작가들이 왜 그렇게 리메이크를 많이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비비** 합평할 때마다 그랬어요. 다른 작가님들 보면 분명 피드백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는 게 보이는데, 저는 계속 말했다시피 흐름을 바꾸고 묘사하는 법을 알아차릴 때까지(두 시기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거의 바뀐 부분이 없었거든요. 정말 우물했어요. 그게 풀리고 나서는 좀 덜했던 것 같네요. 지금은 ‘그냥 처음이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려니 해요.

**도담** 네,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분명 스토리가 잘 구상되고 있었는데, 글로 표현하려니 너무 잘 안 써져서 쓰고 있던 글이 너무 미웠어요. 물론 저의 잘못이긴 하지만 제 생각을 글로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리엔** 당연히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내용이

원하는 대로 안 써졌을 때 소설이 미웠어요. 괜히 소설에 짜증을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 텐데 애꿎은 소설을 미워했어요.

**홍옥** 소설을 쓰다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가님만의 기본전환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겠어요?

**구와** 전 일단…… 밖에 기어나갑니다. 머리를 좀 식혀야 해요. 혼자 천천히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죠. 이어폰으로는 감성적인 노래가 흘러나오고요. 자기암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촉촉한 감성을 간직한 작가다. 나는 지금 소설이 쓰고 싶다. 나는 예술가다…… 좀 우습긴 하지만 다들 무슨 기분인지 아실 거라 생각해요.(웃음) 그리고 감정이 잡히면 딱 들어와서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노트북 하나 켜놓고 쓰는 거죠.

**비버** 대면 수업을 몇 번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해결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분명 제 소설의 문제점을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르거나 막히는 부분이 제 선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H씨한테 물어보게 됐죠. H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최악의 초고에서 진전이 없지 않았을까

요.(웃음)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면서 막혔던 스토리도 생각이 나거든요.

**도담** 저는 소설을 쓰다가 막힐 때는 노래를 듣고 와요. 울적한 기분이 풀릴만한 아주 신나는 노래를요. 노래를 몇 번 따라 부르다가 다시 글을 쓰려고 하면 그 전보다 글을 써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노래를 자주 즐겨 들어요.

**리엔** 저는 더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조금 비우고 나면 다시 마음이 잡히는 기분이었거든요.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어 봐야 저는 결국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손을 한 번쯤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루나** 작품을 쓸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구와** H씨!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이죠. 아까 말했듯 저는 머릿속에 생각이 정말 많은 타입이라, 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서술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들 초고에서 퇴고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좋은 글이 나오는 걸 보고 자극이 됐다고 할까요. 덩달아 열심히 쓰게 되었

습니다.

**비비** 단언컨데 H씨죠. 앞서 말했듯이 H씨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그 외에도 뭐 주인공들의 이름이나 성격에 도움을 준 친구(?)를 꼽을 수 있겠네요. 그 친구에게 조금 털어놓으면 약간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괜찮은 부분을 말해줬거든요. 그 친구가 보고 있을진 모르겠네요.(웃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도담** 같이 소설을 썼던 작가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 시간마다 했던 피드백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쓰면서 이상했던 문장이나, 추가할 문장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작가님들의 의견이 제 소설에 많이 반영되었고, 그로 인해 더 완성도 높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엔** 저는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제게 피드백을 남겨주신 모든 분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소설에 관한 생각도 다르지만 비슷한 피드백을 남기고자 할 때도 많았거든요. 제게 피드백을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초고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홍옥** 소설을 쓸 때 참고했거나 영감을 얻은 책, 영화, 음악 등의 매체가 있나요?

**구와** 음, 우선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봤어

요. 이건 아직 이영이 예지몽을 꾸던 초고 때 세콜이 추천해주신 건데, 다 보진 못하고 몰아보기 클립으로 봤네요.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비밀의 숲>, <검사와외전> 등 다양한 법정 드라마의 취조씬……. 지연의 취조-수감 파트의 분위기를 상상하기 위해 봤습니다. 노래는…… 그냥 제 새벽 감성 플레이리스트를 돌려들었는데, 이 소설을 쓸 당시에 유난히 이소라의 <track9>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 가사가 지연과 참 닮은 듯하네요.

**비비** 저는 엄청 많았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중에 대사를 약간 인용하기도 했어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OST 중 하나인 <lovefool>을 편의점 장면에서 듣기도 했고, 그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알고리즘이 이끈 노래인 <Innan Du Gar>을 BGM으로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의 <혹시>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모티브로 삼기도 했고요. 시간 나시면 한번 쯤 봐도 좋을 글인 것 같아요.

**도담** 소설을 쓸 때 참고한 책은 《아몬드》라는 소설이었어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책도 성장 소설이라서 《아몬드》를 보고 성장 소설을 쓰

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태연의 〈날개〉를 들었어요. 노래 자체의 가사도 너무 예쁘고 좋은 곡이라서 날개를 듣고 이 소설의 주제를 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리엔** 제가 생각했던 인물의 사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노래는 보아의 〈Milky Way〉를 들으면서 썼어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목** 작품을 보니 현실 사회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많더라고요. 작가는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나요?

**구와** 저는 여성이요. 주로 약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여성이고, 제가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을 가리고 내 손발을 묶을 오래된 것들이요. 동시에 사랑하는 여동생, 친구들 또 이름 모를 여성들의 구속을 풀어주고 싶기도 해요. 이 소설의 주제도 그렇죠? 여성, 가정 폭력, 연대. 제 신조가 남자에겐 더 엄격하게, 여자에겐 관대하게거든요.(불편하게 듣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회적 잣대가 여성에게만 가혹한 건 사실이니까요. 여 연예인은 인성 논란 한 번이면 은퇴설, 사과문까지 나오는데, 남 연예인은 성착취, 음주운전 등 별 범죄를 저질러도 곧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 제 생각이 소설에 드러났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고많은 소설 중, 이런 것도 있어야하지 않겠어요?

**비버** 제 행복과 자유?(웃음)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저 스스로부터 행복에 대해 정말 많이 고심하기도 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좋아해왔던 것을 그만두게 되면서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관심 가는 분야가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모든 걸 내려놓자는 마인드로 저것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도담** 제 소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저는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차별이 예전보다는 줄었고, 여성 인권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리엔** 저는 요즘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코로나 19로 인해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환경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말이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자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 인간 중

심적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홍옥**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가치관이나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와**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지 않게’ 보는 시선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특별 취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유가 있다고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죄인으로 서만 다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음대로 남의 사연을 소비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추측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버**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읽은 독자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 정말 사소하더라도 꿈이 없다면 뭘 하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꿈이 있어야 뭘 할 기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작은 꿈이라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빵을 먹어야겠다는 소박한 꿈이라도요.

**도담** ‘진정한 친구’요.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라는 존재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죠. 제 글을 읽고서 독자들이 이 어렵고 복잡한 단어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리엔** ‘친구’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만 곁에 있어 줘도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을까요.

**루나** 추후에 다른 작품을 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 구상해 놓은 스토리가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구와** 하하. 별로 생각해 본 게 없긴 하지만요, 써보고 싶은 건 많죠. 전 보고 싶은 장면이 생기면 그걸 쓰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힘들긴 할 것 같아요.(웃음) 근데 이번엔 좀 시대극을 써보고 싶네요. 기왕이면 여주인공이 다 해먹는 로맨스로! 남들이 보기에 재미있는 이야기? 깔깔 웃다가도 영영 울 만큼 몰입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소설이 쓰고 싶어요.

**비버** 지금 합작을 고민하고 있긴 해요. 근데 솔직히 구상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는 못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뭔가 하지 않을까요.

**도담** 추후에 다른 작품을 쓸 생각은 있긴 하지만 자신은 없어요. 이 소설을 쓰면서 너무 힘들어서 바로 다른 스토리와 인물들을 생각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또 소설을 쓰게 된다면, 그때는 밝은 캐릭터들과 바다를 주제로 소설을 써보고

싶어요.

**리엔** 당장 다른 작품을 쓸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그렇기에 구상해 놓은 스토리도 없고요.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다른 작품을 쓰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린**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구와** 제 소설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네요. 부디 재밌게 읽으셨길 바라요. 어색하고 부족해 보여도 누군가에겐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비버**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아도 재미가 있어야 손이 더 쉽게 가거든요. 《해몽》이 그런 책이었다면 좋겠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담** 우선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 써보는 글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글이 여러분께 조금의 위로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리엔** 제 소설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부족하고, 어색하고, 재미가 없는 소설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몇 주 동안 머리를 싸맸는지 모르겠다. 내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조금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끔찍하며 서사를 끌고 간 티가 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래도 이렇게 책으로 나왔으니 더 이상의 걱정은 접어두고자 한다. 오히려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200자 원고지 86매에 달하는 이 소설은 스치듯 본 기사 한 줄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남편을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내용이였다. 충격이였다. 친구들과 분노로 가득 찬 카톡을 나눴던 게 생각난다. 마침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본 기사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살인죄로 수감된 수형자 중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계속된 남편의 폭력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수감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아쉬움이 크게 남은 인물인 동시에 이 소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연이라는 인물이 나왔다. 그 후에는 이영이, 그다음엔 지호가, 제일 마지막으로 백발노인이 나왔다. 어떤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서사를 진행할 것인지가 가장 고민되었다.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인가.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그 누구는 이영이 되었다. 지호, 지연 자매에게서 완벽히 떨어진 타인인 동시에 그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렇기에 더욱 매력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했다. 전체적인 서술을 건조하게 빼는 대신 이영의 내면 서술에서 혼란을 가중하려 노력했는데 의도했던 대로 잘 표현되었는지 모르겠다. 이영이 가진 이상한 능력도 심혈을 기울여 정했다. 초고에서 이영은 예지몽을 꿔다. 그러나 예지몽이라고 하면 좋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서 회상몽으로 변경했다.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오히려 있는 게 이상한 능력을 주고 싶었다. 이미 어찌할 수 없게 흘러가 버린 불행을 꿈꾼다는 건 여러모로 이영에게 가혹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영이 꿈을 기록하는 습관은 내게서 따온 것이다.(꿈 노트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소설로 쓰면 아마 난 대박이 날 것이다.) 나는 꿈을 몹시 자주 꾀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목격한다. 꿈에서 나는 성인 남자이기도, 어린아이이기도 한다. 심지어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나는 그곳에 있지만 동시에 없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가 재생되는 것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목격할 뿐이다. 나는 어쩌면 이것들이 다른 누군가의 기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영이 내 공상적이고 어두운 자아를 나타내고 있다면, 지호는 현실

적이고 밝은 자아를 나타내고 있다. 남들이 아는 나를 닮은 건 아마 지호일 것이다. 원래 지호 특유의 사교성으로 이영과 더 친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분량상의 문제로 빼버린 게 못내 아쉽다. 이영의 다이아러리를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호였고, 다소 코믹한 장면이었던 것만 밝혀본다. 인물 구성 단계에서 내가 잡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망치지 않는 인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도망치는 걸 끔찍이 싫어한다. 귀찮고, 일이 커질까 봐 덮어두고 외면하는 게 세상 가장 답답해지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도 부담감을 착실히 다 느낀다. 제 꿈의 진실을 마주한 이영, 언니의 사연을 믿고 싶지 않은 지호, 남편을 죽인 지연, 고요한 죄책감을 진 백발노인…… 인물들은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괴로워하지만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잠깐 멈출지언정 뒷걸음치는 인물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쓰고 나서 생각해보니 죄다 이상하고 이상적인 인물뿐이라 조금 웃기도 했다. 작품엔 작가의 생각이 담긴다는 게 이런 뜻인가 싶었다. 어쩌면 하나 같이 나를 다른 버전으로 쪼개놓은 것 같으니. 소설의 중심 인물이 된 지연에 관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한다. 사실 지연의 이야기 파트를 쓸 때 머리가 다 지끈거렸다. 최대한 건조한 분위기를 내면서도 지연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싶고 섬뜩하고 선명한 느낌을 주고 싶는데, 너무 세세하게 표현했다가는 감성적인 불행포르노로 전락할까 무서웠다. 그래서 지연의 파트를 쓸 땐 무표정하게 자판을 두드린 것 같다. 최대한 남이 쓴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쓰려고 노력했다. 내 안의 지연의 이미지는 나무였다. 지연만 생각하면 바삭 말라 날카로운 가지를 가진 회색빛 겨울나무가 떠올랐다. 본래 푸르던 여름 나무가 찢어질 듯 버섯한 겨울나무로 변한 모습. 아주 강하고 또 아주 연약한 그 나무는 새순이 돋아나는 중인 봄까지 왔다. 원래 지연 시점의 내면 묘사가 더 들어가 있었는데 어울리지 않아 뺐다. 그러면 내가 주고 싶었던 느낌이란 조금 멀어진 것도 있는 것 같다. 부디 독자들이 상상한 지연이 내가 떠올린 이미지와 비슷했으면 한다. 감방 동료들 이야기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이만 말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을 읽고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상하고 특별한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가?' 하는 것이다. 특별함이 특별해지지 않는 사회를 소망하는 동시에 이런 것마저 특별한 일 아니게 된 세상을 원망하며 긴 글에 마침표를 찍는다.

제 소설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완성된 글을 쓰게 되었다. 정해진 분량 안에서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글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인물의 세부사항을 설정하는 등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이 막막했다. 그래서 소설의 인물을 내 모습에서 많이 따오게 되었다. 착한 아이 증후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이미지로 남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기에 그 모습을 과장해서 글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착한 아이 증후군에 관해 서술한 소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고를 썼을 당시에 연우의 성격은 지금보다 더 소심했고, 태인이는 싸가지가 없었으며, 채영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태인이를 멋있고 당당한 캐릭터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내 필력으로는 그 당당함을 표현하기가 힘들었다. 그 결과 오지랖이 넓은 이상한 인물이 되어 버렸다. 내 글이지만 너무 답답했다. 인물과 내용이 다 엉켜있어서 줄거리 정리가 단박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채영이라는 인물을 넣게 되었다. 채영이는 작중 인물 중 유일하게 밝고 활발한 성격을 지녔다. 재미없고 시시한 두 인물만 존재했던 내 소설에 밝은 인물이 등장하자 원래 존재하던 인물의 성격은 물론 내용까지도 살짝 바뀌게 되었다. 채영이를 소설 속에 등장시킨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나는 내 소설에서 채영이를 가장 좋아한다. 소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채영이는 태인보다 먼저 연우의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알게 된 유일한 사람이자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태인이처럼 앞에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을 뿐이지 연우가 힘들 때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사람 역시 채영이다.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채영이지만, 연우는 자신을 도와주는 태인을 더 의지하게 됐다. 나는 이 소설을 씀으로써 진정한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다. 진정한 친구와 친한 사람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알고 싶었다. 두 부류 모두 나와 친한 것은 맞지만 미묘하게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만약 내가 연우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태인보다는 채영이를 더 믿고 의지했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태인보다 채영이에 더 가깝다. 나를 믿고 곁에 묵묵히 있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설의 독자들이 '누구에게나 제 곁에 진정한 내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딘가에서 이 소설을 읽고 있을 독자들에게 염려가 아닌 격려를 해주고 싶다.

이 소설을 쓰면서 힘든 점이 많았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글을 쓰는 것도 힘들었고 마감 시간에 맞춰서 글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렇지만 결국 글을 완성하고 벌써 후기를 쓰고 있다. 이제는 정말 단편소설 출판 프로젝트의 중 지부를 찍고 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재미있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또 하나 생긴 것 같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더 있었다면 글의 완성도를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은 못 하겠다. 시간이 더 있으나 없으나 결과물은 비슷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결과물도 만족스럽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글을 완성했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고 기쁘다. 더불어 연우, 태인, 채영이라는 세 명의 인물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또래 친구 사이에 있을법한 일을 소재로 잡았다. 누구나 한 번쯤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을 테니 말이다. 처음에는 구상해놓은 내용이 있어서 소설을 쓰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했던 대로 글이 쓰이지 않아 굉장히 힘들었다. 거기다 공통주제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소설을 구상해야 해서 머리가 아팠다. 내가 생각한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이렇게 글을 제대로 써본 게 처음이라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서로의 소설을 보고 합평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내가 다루고자 한 것은 말 그대로 '친구'다.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에게 말을 곱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는다. 꿈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친구를 만드는 내용을 상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유은은 주연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인물이다. 현실이 아닌 꿈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설정을 넣었다. 다정하고 따뜻한 유은은 주연에게 아주 큰 존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을 테니까. 하지만 유은과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주연은 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유은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냐는 의문이 들었다. 나왔다면 그랬을 것 같기 때문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하나를 소유하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게 된다. 그러다 보면 계속 갈증이 나고, 욕심을 주체할 수 없게 되며, 결국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된다. 주연도 마찬가지다. 아마 주연은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크게 후회했을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웃지 않았을까 싶다. 한 번씩 생각나는 유은이 생각에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을 것 같다. 주연에게 있어 유은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닐 테니까.

나는 글을 잘 못 쓴다. 심지어 재미있게도 못 쓴다. 소설을 구상할 때만 하더라도 뻔한 내용, 뻔한 인물투성이었다. 재미로 쓰기 시작한 소설이 어느새 완성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떨떠름하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만큼 내 소설도 빠르게 막이 내렸다. 완결을 짓고 보니 아쉽고 부족한 점만 보인다. 게다가 가족도, 친구도, 동료 작가도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소설을 읽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나는 내용을 알기에 이해가 되지만 독자들 눈

에 불친절한 작가로 비칠까 봐 걱정된다.

다 말할 순 없지만, 이 소설을 쓰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 이 소설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매주 함께 소설을 쓰고 배운 청주프 단편소설 출판 프로젝트 목요일반 동료 작가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동료 작가들 덕분에 이렇게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정말 즐거웠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 것 같다. 모두에게 감사하다.

저의 첫 독자님들께.

우리가 함께했던 울어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세상이 하얘지는 겨울이 왔습니다. 제가 소설을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아 들떠 있을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작가의 말을 써 내려가고 있다니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소설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시골 배경에 여주하나, 남주 하나 구상한 게 전부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간에 바뀐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시간순으로 흘러가던 이야기였는데 플롯을 다시 잡아보라는 말에 골머리를 앓다 흐름을 바꾸기도 했고, 별생각 없이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성년자로 잡았던 인물의 나이를 조금씩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로맨스가 아니었던 글의 방향을 다시 잡기도 했고요. 파일을 몇 번씩 날려 먹기도 했고, 하필 마지막 피드백 직전에 최종본이 아니라 절반만 수정한 파일을 내는 바람에 날아가는 정신을 겨우 붙잡으며 고치던 기억이 선명해요.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확실히 제가 원하는 만큼의 스토리가 나오려면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만약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제발 모든 일을 너무 앞잡아 보지 말라고 나 자신에게 충고해 주고 싶네요.

소설에서 도아와 연준은 꿈으로 인해 고통받지만 꿈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예요. 악몽과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무안으로 내려온 도아와 의미 없이 세월을 낭비하던 연준이 만나 악몽을 멈추고 둘만의 행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장마가 시작되면서 그 꿈을 접게 되죠. 연준과 함께라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예상외로 심해진 악몽과 트라우마에 도아는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중국을 머릿속에 그리게 돼요. 결국 연준은 중국에 간 후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러 떠나버리겠다는 도아와 함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작중에도 나오지만 여차피 살아봤자 싸구려 인생, 함께라서 행복한 사람과 떠나는 게 연준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결말이 아니었을까요. 이 소설의 끝인 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드 엔딩으로 보이겠지만, 자신의 꿈을 이룬 도아와 연준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이 책의 공통 주제죠. 저의 수많은 꿈 중 하나는 작가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생각만 해왔던 제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제일 먼저 메시저로 시도 때도 없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제가 귀찮았을 법한데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친절하게 도와주신 H씨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이지 H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수치스러운 초고를 붙들고 울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지 디자인을 도와주신 라라와 수업을 함께 해준 세콜, 다른 작가님들에게도 마친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서도아와 최연준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준 친구에게도 이 소설이 드디어 끝이 났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글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초고를 구상할 때만 해도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는데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뻥뻥한 아파트들 너머로 붉은 해가 사라지고 있어요. 새벽마다 고장 난 깡통 같은 머리를 쥐어짜며 스토리를 구상했는데, 그때 들었던 노래가 이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Theresa Andersson의 (Innan Du Gar) 인데 공항으로 떠나는 둘의 분위기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언젠가 팝송을 즐겨 들었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끌었던 노래가 이 소설의 BGM이 될 줄은 몰랐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잊지 못할 추억 하나가 기록된 것 같아 부듯합니다.

마지막 퇴고를 마쳤을 때만 해도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정말 끝을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출가분하네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꿈을 떠올리게 하는 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여정을 마무리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가벼워지만 둘에게 영원할 여름을 떠올리며, 도아와 연준의 추억인 뜨거웠던 이 여름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광주다운 미래학습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인  
〈2020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 있습니다.  
양측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12.31

**펴낸곳**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ISBN**

979-11-90003-75-9 (02810)

**기획**

유휘경(H씨)  
최세미(세콜)

**디자인**

라이트라이프

**표지사진**

송채연

**글**

구와  
리엔  
비버  
도담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37 (61483)  
전자우편 : hello@samdi.or.kr 홈페이지 : www.samdi.or.kr  
대표전화 : 062-232-1324 문의전화 : 062-224-0541

